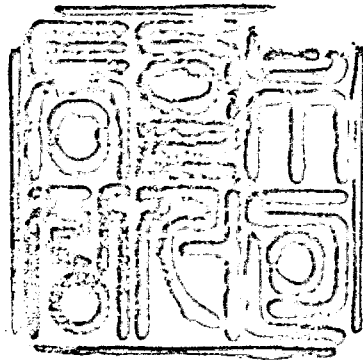


— 南北體育會談 —

# 第4次 實務代表接觸 會議錄

1990. 1.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 3

2. 會議錄 .....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 119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1.10 (水) 10:00 ~ 13:27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任 台 淳</p> <p style="text-align: center;">(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장 응</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曹 英 承</p> <p style="text-align: center;">(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김 세 진</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朴 秀 蒼</p> <p style="text-align: center;">(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허 혁 필</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

---

會 議 錄

---

---





## 2. 會 議 錄

###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任台淳) : 자, 새해 안녕하세요?

北(장 응) : 새해 祝賀합니다.

### (記者들 寫眞撮影)

南(任台淳) :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北(장 응) : 새해 祝賀합니다. 記者여러분들 새해 祝賀합니다.

南(任台淳) : 뒤에 분들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자, 앉으십시오.

北(장 응) : 앉읍시다.

南(任台淳) : 어떻게 장선생 오시면서 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北(장 응) : 예, 어제 왔습니다.

南(曹英承) : 아 어제 오셨습니까?

北(장 응) : 그래 새해 설날 뭐 재미있게 보냈습니까?

南(任台淳) : 예. 우리는 이제 설이 傳統的으로 우리가 해 오던 음력설, 그게 정말 설이고 양력설은 新正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北(장 응) : 그래서 양력설도 쇠고 음력설도 쇠는데 그 설 많으면 좋지요. 앞으로도 계속 설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任台淳) : 어떻게 貴側에서도 음력설도 쇠는지 모르겠습니다.

北(장 응) : 예, 쇠고 있습니다. 음력설때는 우리 평안도 地方에서는 노치

도 해 놓고 강정도 해 놓고 그러는데 이제 새해에 보면 북쪽에서도 세배를 하러 다니고 인사들 하러 다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좀 들고 나니까 어떤 때는 人事를 받는 것도 좀 있고 또 우리 선배들한테 가서는 人事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名節때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南(任台淳) : 뭐 아직 젊으신데요.

北(장 응) :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저 대체로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것이 人事인데 이번에 만난 사람들, 男女老少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하는 소리가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하는 것 보다 「새해 唯一팀 꼭 成事시키십시오」하는 그런 祝福을 받았습니다.

南(任台淳) : 그래 지금 참 唯一팀이다, 單一팀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正月 1일을 넘겼고 새해에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이것은 여러가지로 意味도 크거니와 民族的인 期待도 이 자리에 集中이 되어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아시다시피 말의 해(年)가 아닙니까? 말 가운데서도 흰 말이 다 해 가지고 드물게 오는 그러한 해(年)라고들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白馬가 뛰듯이 힘차고 速度感도 있고 그야말로 높이 뛰면서 필필 뛰어가면서 速度感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여기에 記者先生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雙方間에 單一팀 問題를 놓고 여러가지 말들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意見一致도 보고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9월달이면 競技가 열리게 되는데 그야말로 금년이야말

로 行動으로써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會談에서 이룩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實務的인 立場에서 그것을 한다면 더 쉽사리 이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北(장 응) : 오늘 任先生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1990年代를 시작하는 해(年)고 또 그런 意味에서 1990年代를 始作하는 해(年)인데 이게 「스포츠」가 北南間에 첫 接觸이죠.

그러니까 「始作이 좋으면 結果도 좋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始作을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 이제 任先生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實務代表接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人事가 늦었는데 우리 김형진團長이 張忠植首席代表先生한테 보내는 새해 人事를 좀 傳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저께 張忠植首席代表先生이 聯合通信과 記者「인터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서 唯一팀 構成에서 樂觀을 表示했고 잘만 되면 6月中으로 合同訓練이 시작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가 和解의 精神에서 하면 쉽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는데 오늘 우리 實務代表接觸을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간직하고 나오셨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쪽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先生도 記者會見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實務代表接觸을 잘 運營해서 이거 새해 처음에 일을 잘 해야 그 해는 일이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말 해(年)이기 때문에 白馬처럼 달리자고 했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贊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白馬처럼 그저 하루에 千

리씩 달린다는 옛말에 그 「千里馬」라는게 있는데 그렇게 한번 달려봅시다.

南(任台淳) :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아년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體育分野에서 첫 接觸을 갖는 만큼 이게 말하자면 南北間에 첫 出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쪼록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되겠고 아까 張忠植首席代表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여기에 거는 期待가 큼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問題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推進을 해 보자 하는 立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먼 길을 가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가까운 길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그것 뒤 쉽사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는 가운데 몇 발자욱 간 뒤에 중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갈려고 하다 보며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出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금년도에는 行動으로서 出發을 해야 되는 이런 時點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탄탄하게 발을 내 디딜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雙方이 舍心을 한다며는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北(장 응) : 시작해 봅시다. 우리 시작합니다.

南(任台淳) : 아니 날씨가 쭉 아주 쾌청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린 다음에 개고 또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北(장 응) : 예. 날씨가 풀리고 또 비가 약간 부실부실 오는데…….

南(任台淳) : 예. 일기예보를 들어 보니까 이제 비도 차츰 개인다고 그래요.

北(장 응) : 원래 「비 오는 날 잔치를 하며는 첫 아들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오늘 잘 해서…….

南(任台淳) : 좋은 징조일 겁니다.

北(김세진) : 任先生이 좋은 말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또 이제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會談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任台淳) : 오늘 뭐 보따리를 좋은 것 많이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北(김세진) : 예, 예. 많이 가지고 왔어요.

北(장 응) : 任先生이 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나오셨겠지요?

南(任台淳) : 아니, 그럼 그 동안에는 좋은 것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北(장 응) : 썩 시원한게 없었지 뭘.

南(任台淳) : 그것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北(장 응) : 오늘은 그저 雙方이 양보를 하셔야지.

北(김세진) : 오늘은 그래서 會談·全過程이 이렇게 잘 되어 나가도록 期待를 합니다.

南(任台淳) : 예.

北(장 응) : 먼저, 뭐.

南(任台淳) : 천천히 합시다.

北(장 응) :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죠.

南(任台淳) : 먼저 하시겠어요?

北(장 응) : 먼저 하시죠.

南(任台淳) : 아니, 말씀하십시오.

北(장 응)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側代表 여러분!

南(任台淳): 아니, 發言文을 낭독하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格式을? 예 좋습니다.

北(장 웅):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北(김세진): 정중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北(장 웅): 예, 말씀드립니다.

#### <北側 基本發言>

남측대표 여러분!

통일대망이 실현될 9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 정초에 제일 선참으로 이렇게 만나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일팀을 기어이 탄생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뜻깊은 오늘 접촉에서 실무대표들 앞에 부과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온 겨레와 체육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며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지난 제6차 회담에서 유일팀 구성방안 토의를 성과적으로 계속하고 련이어서 유일팀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까지도 모두 다 합의함으로써 이제 우리 앞에는 유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 문안을 정리하는 것과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보증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일팀으로 제11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남체육회담 역사에서 일찌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쌍방 대표들이 유일팀 구성을 마무리짓는 지금 단계에서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상정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자기 앞에 부과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표접촉에서 일체의 체육외적인 문제를 개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일팀 구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근본 담보의 하나로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담을 순조롭게 전진시키고 10개항의 방안토의를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쌍방이 다같이 문제토의에서 체육외적 문제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유일팀 구성 문제토의에 집중해온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측이 지난 6차회담때 유일팀구성·참가 문제의 협의·해결과 그 실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체의 체육외적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한 데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담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빨리 합의점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정된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거지사를 가지고 시야

비야 한다거나 큰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한다면 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을 바랄 수 없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화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선의를 선의로 대하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팀을 구성하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회담을 시작한 이상 쌍방은 우선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 않고 의심부터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의심이 새로운 불신을 낳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해 나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리행을 성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상과 같은 옳은 입장에만 선다면 오늘 접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오늘 실무접촉에서 토의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일팀 구성방안 문안정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실무접촉들에서 쌍방의 안을 한조항씩 읽고 대조하면서 합의를 본 문제이므로 별로 제기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0개항의 조항들을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 유일팀 구성에 관한 완전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는 18일 본회담에 제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둘째로 합의사항의 성실한 리행을 위한 보증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6차 회담때에 귀측이 제기했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난 본회담에서 귀측이 이 문제와 관련한 안을 오늘 접촉에서 제기하겠다고 한것 만큼 그에 대해서 우선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일팀 공동위나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측이 지난 6차 회담때 귀측이 내놓은 방안을 검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므로 토의가 끝난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칙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를 본것 만큼 오늘 문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다음번 7차 본회담에서 서명하여 발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실무대표접촉에서 토의·해결해야할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상과 같이 밝히면서 오늘로서 유일팀 구성문제에 대한 실무토의를 마무리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任先生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南(任台淳): 자 그럼, 말씀 다 하신거죠?

北(장 옹): 예.

南(任台淳): 지금 貴側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들어서 첫 接觸을 갖게되는데 우리로서는 매우 意味가 큰 接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이켜 볼것 같으면 昨年 3月달부터 우리가 會談을 시작을 해서 적지 않은 成果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今年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接觸은 昨年의 경우와는 아

주 현격하게 그 意味가 더 중요한 이러한 階梯에 우리가 도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작년도에는 第 11 回 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하는 問題와 관련하여 雙方間에 基本的인 이러한 意見交換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今年에는 적어도 이러한 意見一致된 것을 土臺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무런 차질이 없이 우리가 實踐에 옮길 수 있겠는가.

어느 한쪽이 아니고 雙方이 다같이 진심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行動을 가지고 이것을 實踐해 나가겠는가, 그러자면 여기에는 장선생도 強調했습니다만 民族和合과 그리고 스포츠精神에 充實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일을 잘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第 11 回 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 構成問題를 協議하고 있습니다만 이 問題는 비단 北京大會 뿐만 아니고 모든 國際競技大會에 우리가 單一팀을 構成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첫 걸음을 내디디는 것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뿐만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인 南北體育交流에도 始發點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南北體育交流 뿐만 아니라 우리 南北體育人들이 南北關係의 改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平和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서도 우리가 重要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意味를 지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雙方이 意見交換을 한 內容을 가지고 合意文書를 作成을 하고 雙方이 署名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거기에 附帶되는 이것을 확실하게 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그러한 附帶措置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會談이 몇가지 할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附帶措置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나는 重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몇가지 이 얘기를 肯定的인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側과는 조금 意見이 다른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번 6次會談때 우리가 얘기 하기를 本會談에서 얘기되었던 10個項에 대한 文項討議는 기본적으로 討議를 우리가 實務接觸 그리고 本會談에서도 確認을 했는데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의 構成・運營과 관련한 具體的 規定을 우리가 正式으로 合意書案을 만들어서 내놓았던데 대해서 貴側이 同意를 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이것도 기본적으로 採擇이 된 狀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이 問題도 文項整理와 다소간의 意見調整이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主要課題는 제가 보기에는 單一팀 구성・참가와 관련해서 合意事項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한 裝置問題에 대해서 雙方이 의견일치를 보고 가능하면 合意文案까지도 채택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적어도 合意保障問題는 10個項의 合意精神에 충실한다 할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問題도 오늘 이 實務接觸에서 어렵지 않게 解決될 수 있으리라 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張首席代表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保障裝置의 몇가지 事例로써

合意事項의 用語定義, 그리고 이걸 말하자면 合意事項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 용어의 해석문제가 되겠는데, 貴側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뭐 필요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立場에서는 적어도 履行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共同委員會가 열렸을 경우에 거기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계속 남겨놓는 것은 우리 會談代表들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責任을 다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用語上的의 문제에, 해석상의 문제가 귀측은 없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럴것 같으면 앞으로 討議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없다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우리측으로서는 여기에도 事前에 意見調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體育會談에다가 體育外的 問題를 介在시켜서는 안되겠다. 이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貴側도 여기에 선선히 同意를 한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매우 多幸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合意事項이 제대로 履行이 안될 경우를 어떤 경우를 상정해야 되겠느냐? 우리들로서는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合意事項이 履行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分明하게 받아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9月달이라고 하는 날짜가 定해져 있는거기 때문에 이大會는 그 일정 이것을 어떻게 共同委員會는 언제 설치를 해서 事務局을 運營을 하고 또 그리고 선수훈련을 언제부터 어떻게 合同訓練을 시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선발전을 실시를 하고 그리

고 선수단구성을 언제까지 끝내고 또 그리고 나서 엔트리는 언제까지 낸다 이러한 日程을 확실하게 定해 놓고서 일을 推進을 해야지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미 이러한 立場을 전에도 밝힌적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雙方當局이 또 誠實한 履行이 잘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하는 保障覺書를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貴側은 合意事項履行 保障을 위한 裝置問題에 대해서 오늘 討論을 해서 決定을 하자 하는데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였고 오늘도 기본적으로 이 問題를 討議한 다는데 대해서는 同意를 하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基本問題에 대한 意見一致가 되고 또 共同委員會 運營에 관한 合意書 그리고 등등에 대해서 意見이 基本的으로 一致가 된 마당에서, 그러면 이 合意書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意見を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貴側은 合意書의 모양을 대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合意書에 들어갈 基本要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되겠죠.

北(장웅) : 그러니까 지금 任先生 이야기를 들어보면 唯一팀 構成方案 10 個項目, 우리가 기본적으로 基礎文件으로 계속 討議해서 合意를 한 그 10 個項目에 대한 文項整理는 특별히 따로 필요없겠다 그렇게…….

南(任台淳) :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 보다도 뭐 10 個項 文項의 討議를 더 하고 안하느냐하는 問題는 사실 우리로서도 項目別 討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할 필요보다는 내가 보기에 는 우리가 이제 合意書를 作

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合意書속에는 10 個項만 들어가서 이 合意書가 끝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제일 우선 필요한게 雙方 首席代表가 署名을 하는 형식문제 우선 있는거니까 雙方 首席代表가 署名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連署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問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하여간 署名을 하는 問題를 포함해가지고 合意書속에 무엇 무엇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런데 또한 意見이 없으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北(장 응) : 그거는 그저 우리 생각에는 10 個項이 그것이 合意書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南(任台淳) : 아 그러면 貴側은 10 個項만 合意書에 넣어가지고 그냥 署名하면 되겠다?

北(장 응) : 合意하고 그 다음에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 貴側에서 내놓은 運營方案 있지 않습니까? 5次 지난번 會談에서 내놓은, 6次 會談에서 내놓은 運營方案 그것을 우리는 運營細則으로 해서 合意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南(任台淳) : 아니 그러면 장선생은…….

北(장 응) : 왜 그러는고 하니 이제 任先生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內容들이 다 10 個項目과 共同推進機構運營方案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10 個項目, 10 個項目 우리가 오랜 期間 互相研究를 하고 서로 맞추고 互相讓步를 하고 해서 맞춰놓고 했는데 이것이 基本文件이 아니겠느냐.

南(任台淳) : 장선생님 내 말씀을 잘 理解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北(장 응) :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것들을 添加하자는 겁니까?

南(任台淳) : 아니 그런데 지금 장선생님 말씀하시는데로 예컨대 體育外的 問題를 介入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相對 側을 선의로 대하도록 해야 되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냥 口頭로만 意思表示를 해놓으면 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北(장 응) : 그러니까 그걸 任先生은 文件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런 內容들이 共同推進機構運營方案에 들어가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죠.

南(任台淳) :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北(장 응) : (自己側 隨行員에게 對比表를 달라면서) 그래서 雙方 10 個項을 다 이제 맞춰서 가져왔는데 그거하고 運營方案,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도 이렇게 對比했어요. 뭐 基本上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對比表 우리側에 傳達)

南(任台淳) : 그런데 지난번하고 內容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北(장 응) : 지난번 6次會談에서 合意한 內容들이 있으니까.

南(任台淳) : 응 그러니까 우리側 案에 맞춰가지고서 對比한거다. 貴側式的 表現을 해가지고.

北(장 응) : 表現은 우리 式으로 文項은 整理된게 있고.

저것이 基礎文件이고 이것이 合意書 內容으로 採擇되면 되겠다.

南(任台淳) : 그러면 合意書案이 아니고 對比表인거죠?

北(장 응) : 그러니까 저렇게 雙方이 내놓은 것이 결국은 合意書…….

南(任台淳) : 그러니까 貴側 이야기로는 저 밑에다가 雙方首席代表가 署名

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北(장 웅) : 아니 저건 對照니까 저것 갖고 할 수는 없고 저걸 分離시켜 가지고.

南(任台淳) : 分離시켜서 署名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北(김세진) : 雙方案을 對比的으로 놓았으니까 다를것 없으면 그 內容대로.

北(허혁필) : 序文이나 雙方이…….

南(任台淳) : 그러면 지난번의 이야기라든가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內容과 실제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나는 받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적어도 合意事項을 履行을 保證하는 裝置問題에 대해서 貴側도 그걸 肯定을 하고 同意를 하셨고 이 問題에 대해서 이제 討議해서 合意를 보자하는데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거는 또 合意文件과는 별개 問題다 이렇게 된다면 合意文件은 뭐고 그냥 合意事項은 뭔지 이것도 이제 問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南北體育會談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體育人들이지만 이게 40여년만에 만나가지고 모처럼의 合意書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는 神經을 쓰고 그야말로 세심하게 주의력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合意文件을 이렇게하고 만들어서 民族앞에 보여주든가 外部사람들이 또 볼 때에도 이게 「아 格式에도 맞았고 內容은 그래도 갖출것은 갖췄구나」 해가지고 이걸 내놓아야지 우리가 몇몇한 것이지 뭐 몇조항 이것만 그저 合意를 했노라 이거 가지고는 合意書가 제대로 되어졌는가 하는데 대해서 생각을 再考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고보면 이거 合意文件은 나왔는데 정말로 單一팀이 내일모레 되는거나 이렇게 되어질 우려도 경우에 따라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



각이 안되세요 貴側은?

왜냐? 40여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지금 分明하게 말씀을 드려서 南北 間의 關係라고 하는것이 아직도 냉혹한 면이 占하고 있는 比重이 큰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軍事分界線을 가운데다 놓고서 우리가 對話를 나누고 있는 이런 立場인데 단순히 單一팀 하기로 合意했다 이것만 發表하는 것 가지고야 이걸 정말로 내일모레 單一팀이 되겠구나 우리 民族들 가운데 몇사람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信賴를 갖겠는가?

장선생님 아까 말씀잘하셨는데 信賴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信賴를 가지고 하도록 할려면 信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行動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가능한, 우리 體育人들이 不可能한 問題에 대해서야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體育人들이 可能한 分野에 대해서는 이걸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合意書를 만들려고 할것 같으면 최소한도의 前文은 필요할것 같다. 이걸 뭐냐하면 會談은 적어도 民族知解와 스포츠精神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런 序文이 한마디 있어야죠?

北(張 勳) : 말씀도중 미안한데.

南(任台淳) : 아니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10個項目이 당연히 基本骨格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요. 이게 말하자면 基本骨格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合意事項을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發效된단가 이게 날

짜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게 發效가 되느냐?

오늘 署名을 했지만 열흘후부터 發效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수도 있는거고, 共同委員會가 構成이 돼야지만 이것이 合意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單一팀으로 나가야만 그때가서 完全히 合意事項이 效力을 發生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條項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合意事項을 署名하면 署名한 날짜부터 예컨대 「效力을 發生하도록 한다」든가 效力發生 條項이 우리가 없을 수 없듯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附則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附則이.

그래서 내가 볼때에 序文이 있어야 되고 附則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體育外的 問題를 紹介시켜서는 안되겠다든가 그밖에 우리로서는 用語問題라든가 이것을 튼튼하게 保障裝置를 할 수 있는 이러한 內容들이 包含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온김에 우리가 附則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內容을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만 實例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附則가운데 우선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해서 별도 合意書를 만들겠다. 이거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난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아까 用語解釋問題 나왔는데 예컨대 用語解釋問題에 대해서 貴則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討論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用語解釋에 대해서 상당한 意見交換이 필요하다는 立場인데, 거기에 대해서 意見을 交換을 해가지고 이 內容을 어떻게 附則化할 것인가 이것도 論議된 內容이 많다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合意書

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도 상당히 여러부분에서 사전에 討議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예컨대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면, 빨리 會談을 推進을 해나가게 되면 적어도 2月中에 共同委員會가 構成이 되어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상정을 하는데, 共同委員會를 構成을 하게되면 또 거기에서 南北體育會談하듯이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책상을 맞대놓고 『우리의 意見이 옳소, 당신네 意見이 글렀소』 이런 얘기들 많이 주고 받았고 또 『내가 讓步했소, 당신네가 讓步했소』 이런 소리 자꾸 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누가 讓步하고 안하고 하는게 사실 중요한 問題가 아니고 이게 참 사실 民族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方向을 선택하느냐 하는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로서는 事前 霧圍氣를,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霧圍氣를 造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單一팀에 대한 實踐意志를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措置가 필요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共同委員會構成에 앞서가지고 南北間에 한두가지 種目を 選定을 해서 南과 北에서 親善交換競技를 한번씩 갖도록 하는게 좋겠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결들여서 지금 雙方의 代表들은, 體育人들은 완전히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백지상태거든요.

南北의 現實이라는데 지금 便紙한장 주고 받지 못하는 이러한 狀況인데, 이러한 狀況속에서 우리가 體育施設을 한번 踏査를 해 볼 必要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서 이러한 問題를 함께 討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뿐만아니라 이게 對外的으로도 이제 우리가 單一팀을 構成을 했는데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對外的으로 闡明을 할 것인가?

적어도 이제 최소한도 OCA, 아니 第11回 北京아시아 競技大會組織委員會하고 OCA에 대해서는 우리의 立場을 分明히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問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견 길게 만들 必要도 없고 그저 附則속에다 「이러이러한 內容들」 이렇게 해가지고 附則條項을 設定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또 뭐 附則條項을 넣기에는 適切치가 않고 또 別途로 合意書를 만드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部分은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事實 우리는 이러한 것과 關聯해서 오늘 會談에서라도 이 問題가 모두 妥結될 수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반의 準備를 지금 갖추고 나왔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貴側이 그야말로 그동안의 合意의 精神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合意書의 形式을 이와같이 만들자 하는데 대해서 별 異意가 없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內容에, 들어갈 內容에 꼭 뭐가 들어가고 뭐는 必要 없지 않느냐 하는 問題 또 內容을 좀 바꾸는게 좋겠다 하는 問題는 이제 相互 討議해야할 問題고, 적어도 이제 附則을 設定을 하고 그 다음에 署名을 하자 하는데 대해서 별 異意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具體的인 內容討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장웅) : 어, 이제 具體的인 草案을 가지고…….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意見부터 들어봅시다.

北(장웅) : 이제 그 얘기를 任先生 이제 오래 하셨는데 우리 立場은 그

렇습니다. 이 뼈다구를 이거 완전히 合意를 完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뼈를. 지금 任先生 그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理解를 했으면 좋겠  
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10個項目이 基本, 基礎文件이죠? 지금까지 討  
論한거.

南(任台淳): 아 그렇죠.

北(장 웅): 그거 뼈죠?

南(任台淳): 예.

北(장 웅): 그건 다 그거 지금 文案대로 이젠 다른 變動이 없다. 그건  
合意된 것으로 우리가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南(任台淳): 아 그것에 대해서 意見이 一致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6  
次會談 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北(장 웅): 그러니까 文案整理가 따로 必要없다?

南(任台淳): 文案整理야 그거야 지금 貴側이, 貴側도 하자는 거고 文案整  
理 그럼 貴側은 必要없다고 생각하십니까?

北(장 웅): 아니 지금 말씀한거 보면 그 文案整理…….

南(任台淳): 아니 文案整理야 全體, 말하자면 그 合意書에 全體의 틀이 어  
떻게 이루어 지느냐 하는거에 따라서 전체의 틀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  
고 나서 이제 文案整理에 들어가는 거죠.

文案整理야 그까짓거 뭐 얼마나 時間걸리겠어요? 뭐 쪽 한번 서로 읽  
어나가고 읽어나가면서 하면 되는건데.

北(김세진): 그것 내가 理解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건 그  
러니까 그 合意書作成 이제 問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序文을 놓고 두  
번째는 雙方이 合意한 事項들을 다놓고…….

南(任台淳) : 그러니까 10 個項을 놓고.

北(김세진) : 10 個項도 있고 또 그저 運營, 共同推進機構 運營·構成 말하자면 方案에 대한 그 合意事項도 있으니까 이런걸 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附錄에다가 其他 그저 履行保障裝置와 關聯되는 內容들을 여기에 다 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수표를 하자는 이런 뜻입니까?

南(任台淳) :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合意書의 構成要素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前文, 뒤 貴側은 序文이라고 表現해도 좋습니다 前文이 있고, 10 個項이 있고, 附則이 들어가고 署名을 이제 連署로 하고 그리고 이제 必要한 別途 合意書, 이렇게 構成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北(김세진) : 그러면 그 唯一팀 그건…….

南(任台淳) : 그러니까 풀이해 보면 이제 다섯가지 範疇가 되겠죠. 前文部分이 있고 10 個項이 있고 附則이 있고.

北(김세진) : 가만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前文部分이 있고…….

南(任台淳) : 前文部分이 있고, 10 個項이 있고, 附則이 있고 그리고 署名 連署하는 部分이 있고 그리고 이제 必要한 別途 合意書들이 뒤따르게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添加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雙方이 合意한 것과 關聯해서 雙方當局이 이것을 積極 잘 履行이 되도록 그 支援·協調하겠다고 하는 覺書を 交換하자 여기에 대해서 貴側은 뒤 異意가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6가지 構成要素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北(김세진) : 그럼 거기서 必要한 別途 合意書라는거 그건 어떠한 內容입니까?

南(任台淳) : 그래서 貴側은 지금 合意書案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어쨌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別途 合意書 內容이라는게 내가 이제 쪽 說明을 드렸잖아요?

北(김세진) : 附錄에 대한 것 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 뭐 附錄에다 할 것이라고 이제 附則을, 貴側에서 말하는 附則內容을 이제 쪽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意味하는 겁니까?

南(朴秀蒼) : 그렇죠. 예를 들면…….

南(任台淳) : 附則에서 한文章 하나로 끝내기는 좀 어렵다든가 하면, 事實 附則을 길게 만들면 關係가 없는건데 그렇게 하면 또 모양상 그렇고 하니까 이걸 또 別途로 떼어내가지고 別途 合意書를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北(장 응) :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南(任台淳) : 그러니까 말하자면 合意書의 附錄인 셈이죠.

北(장 응) :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任先生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미 지금 7~8個月동안 討論, 討議해온 이 10個項目 構成方案外에 이제 그 文案整理는 이 附則, 前文, 附則 이것들이 다 討議가 되어야 한개 이런 合意書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그다음에 文案整理를 하자 하는 뜻으로 理解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南(任台淳) : 지금 貴側 말씀은…….

北(장 응) : 그래서 우리 立場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南(任台淳) : 예, 말씀해 보세요.

北(장웅) : 唯一팀 構成을 위한 이 構成方案 10 個項으로 된것이 물론 其他 이런 具體的인 部分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唯一팀 構成을 위한 基本文件은 이 10 個 項目 方案이다. 이것이 그저 合意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實務代表接觸에, 왜그러나 하면 이 問題는 벌써 10 個 項目 條項에 대해서 討議를 여러차례, 한두번 討議해 본 것이 아니고 또 合意가 이미 된 것이고 그다음에 10 個 項目이 또 이미 文案整理를 해서 完結하기 쉬운 것이고 다음으로는 附則問題를 지금 새롭게 提起하시는데 내 이거 전혀 否認하는거는 아닌데…….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附則이 必要하다는건 認定하시는 거지요?

北(장웅) : 附則問題는 이걸 結局에 가서 뼈를, 다시말해서 집을 짓는다면 기둥을 세우고야 지붕을 올려 놓아야지 보면 지금 기둥은 세우지도 않고 뒤 두고 附則問題를 지금 새롭게 또 提起하고 그다음에 文案整理를 하자 그러는데 이것은 먼저본 本會談에서 貴側 首席代表先生도 이번 實務代表接觸에서 文案整理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새롭게 提起된 問題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뭐 共同委員會 앞서서 霧圈氣를 造成하는 問題다. 그다음에 施設踏查問題다 이런 것들 다 새로운 것들인데 이것은 共同委員會에 앞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간단히 내가 느껴지는데도 共同委員會가 먼저 나와서 이런 問題들을 解決하고 處理해야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南(任台淳) : 지금 뭐가 할 수 없는 問題라고요?



北(장웅) : 共同委員會 앞서서 이 뭐 霧圍氣 造成을 위한 무슨 親善交換競技를 한다 하는데 이것은 共同委員會가 나와서 施設踏査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日程問題도 이제 任先生이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南(任台淳) : 共同委員會가 나오면 이거 언제하는 겁니까?

北(허혁필) : 共同委員會가 나와서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할 共同委員會 所管입니다.

南(任台淳) : 이것 討議를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討議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貴側에서는 지금 10個項 文案整理를 하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러니까 附則條項을 確實하게 말씀하세요, 附則條項의 設置가 必要하나 않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北(장웅) : 그러니까 附則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저…….

南(任台淳) : 그러니까 附則이 必要없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北(장웅) : 附則이라는 것이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할 問題들이 아십니까?

南(任台淳) :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참 그…….

北(허혁필) : 아니 그러니까 附則이면 어떤 內容인가 하는 그걸 보고 그 래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論議하지 않았던 그런 問題들을 내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南(任台淳) : 아니 常識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合意書에 附則이 없는 合意書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北(허혁필) : 그러니까 그 合意書 지금 해가지고 온것 그걸 좀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文件하나를 넘겨 줬는데…….

北(장웅) : 그래서 이번 合意書 內容의 체모를 갖춰야 되겠다 序論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發效問題, 署名問題, 保障裝置問題,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과 같은 이런 細則問題 이런 것들은 그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의례히 合意書에 있어야 되는건데 지금 갑자기 附則問題를 새롭게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理致에 맞지않는 것이고.

南(任台淳) : 아니 이것 새롭게 들고 나오는게 아니지요. 새롭게 들고 나오는 것이 絶對아닙니다.

北(장웅) : 施設踏査요, 共同委員會 前에 霧圍氣 造成을 위한 親善交換競技다 이것은 우리 權限밖에 일이고 또 이 共同委員會가 나와서 討論하면서 해 나갈 일인데 지금 갑자기 오늘 이 問題를 들고 나오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을지…….

南(任台淳) : 가만있자. 그래서 그러면 말이죠. 예 말씀하세요( 曹英承代表를 向해 )

南(曹英承) : 대체로 좀 다르긴 하지만 兩側의 意見이 많이 오고 간것 같습니다. 지금 事實 우리가 거의 글자 조금 정도 바꾸는거 이외는 빈틈이 없이 合意되어 있는 事項은 10個項 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고 字句修正도 거의 必要없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合意한 거는 事實이고 그것이 어디까지든지 아까 말씀하신 장웅대표가 애기하신대로 빼다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빼다구가 되어야 되는데 事實 무슨일이 이루어 질려고 하면 이 빼다구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살도 붙여야 하는거고 道具도 붙여야 하는거고, 여러가지 環境도 造成되어야 하는거고 하는 그런 自然의 原理와 마찬가지로 이런 빼다

구를 中心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해나갈 共同委員會의 할 일 그리고 앞으로 9月 22日 大會에 臨하기 까지의 많은 여러가지의 수다한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代表者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想像을 徹底히 해서 아, 이것은 共同委員會에 넘겨 놓는것 보다는 차라리 代表會談에서 範圍를 정해주고, 限界를 지워주고 좀 이런 用語를 明確히 해주고, 또 이런 것은 霧圍氣를 造成해 주고 할 그럴 必要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單一팀을 終局的으로 實現하자는 意志의 側面에서 봐서 반드시 우리가 想像을 하고 想像을 導出해내서 文書로 내서 우리가 明確하게 合意해 놓을 必要가 있다.

왜그러느냐 하면 事實 우리가 이번 會談뿐만 아니고 몇차례의 南北體育會談이 있어지만 終局的으로는 成功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會談이 시작되고 많은 歲月이 흘렀지만 이 文書上으로만 우리가 왔다갔다하고 말로만 討議를 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10個項을 들여다 볼때 정말 우리가 希望의입니다. 이제는 單一팀이 거의다 되었다 하는 希望을 다 가지는 것은 事實입니다. 또 겨레가 그런 期待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더 討議해야될 事項이 뭐냐? 앞으로 共同委員會 以後에 거기에 臨할 사람들 또 거기에 臨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想定을 해가지고 10個項 以外에 보다 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가라」는 그런 우리 옛 祖上들의 말과같이 취해야할 기틀, 이런 기틀이 뭐냐? 이것을 찾아 내어서 솔직 담백하게 우리가 서로 意見을 交換하고 그것을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새롭게 提起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問題가 아니라 그렇

게 생각한다면 안되지요. 정말 우리가 10個項을 中心으로 해서 많은 意見을 交換한 가운데 정말 意見이 一致된 것은 「아, 單一팀을 構成해 보자」하는 意見은 거의 一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進行하는 過程에서 미끌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뭐 意見이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問題提起나 아니냐 이런 式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여기서 討議해야될 事項이 아닌가 하는것을 衷心으로 한번 論議해 보는 그런 過程이 우선 必要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結論을 지은 바대로 이번에는 적어도 合意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誠意있는 文書를 가지고 나오자고 約束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우리가 몇가지 그 때 되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10個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徹底하게 討議를 해서 거의다 合意를 봤다 하는 事實 하나이고 그다음에 10個項 속에서 9項에 「아」號에 보면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해서는 別途로 定한다」해서 그 條項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文件을 提示했습니다.

貴側에서는 細則이라 그러고 우리는 方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案 이것은 어디까지나 方案이기 때문에 이 方案에 原則적인 同意가 있으면 다음에 詳細한 規定으로 꾸며야할 事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貴側에서는 그것을 全部 다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骨格은 그냥 合意가 된걸로 되었

지만 이번에 우리는 그 骨格을 中心으로 해서 정말 眞正으로 이 共同委員會가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追加·補完·修正을 해서 完全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教科書를 우리가 또 準備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는것을 우리 任代表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왜 여기서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느냐?』이런 어떤 挑戰的인 이런 狀況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不必要한 論爭을 삼가하고 刺戟的인 言動은 또 삼가해서 對話 相對方을 信賴해서 그런 側面에서라도 우리가 眞正으로 내는 이 우리의 여러가지 內容들을 여러분도 眞正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論議해 가면서 챙겨나가는 이런 討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컨대 이런게 있습니다. 아까 附則中에서 우리 任代表가 提起한 事項이 하나 있는데 親善交換競技하고 施設踏查問題를 장웅대표는 『아, 그런 것이야 共同委員會가 構成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전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事實은 45年間 分斷狀態를 持續해 오다가 이제 單一팀을 構成한다는 그런 큰 議題를 統一시키고 난뒤에 그야말로 아무런 負擔없는 또 相互間에 또 서로 優劣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競技를 選擇해서 한번 이 정말 軍事分界線 넘어서 親善으로 交換競技를 한다는 그 自體를 共同委員會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雰圍氣 造成은 반드시 必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共同委員會 넘어가면 바로 合同訓練을 어떻게 할 것인가, 選拔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을 막 論議해 나가는데 실지로 合同訓練을 하면 또 나중에

選拔戰을 하면 어떤 問題가 사실상 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問題를 어떻게 事前에 미리 챙겨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點檢하는 意味에서라도 親善交換競技는 必要한데 그것을 이 共同委員會에다가 넘겨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에서 오늘 이렇게 提起하는 거니까 『왜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느냐?』 이런 式으로 대하지 마시고 아, 眞正으로 그런 豫備的인 그런 어떤 負擔없는 親善交換競技를 할 必要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眞正으로 한번 討議하는 이런 姿勢, 이런 姿勢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틀을 만들어 나가자.

南(任台淳): 가만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지금 合意事項이 우선 그 構成要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分明하게 하고, 우리는 合意事項 形態에 대해서 몇가지 方案을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準備를 하고 우리들로서는 可及的이면 이달안으로 모든 合意가 이루어져서 이 會談이 妥結이 되어 버리도록 하기위한 이런 準備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實務的으로 討議할 수 있는 만반의 準備를 오늘 해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合意書에 包含될 構成要素에 대해서 뭐, 問題가 簡單하다고 보는데 「附則條項을 設定을 한다」하는데 대해서만 貴側이, 貴側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肯定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 附則條項에 들어갈 內容이 具體的으로 뭐냐 하는 問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貴側도 아마.....

北(장 응) : 아, 任先生님 ! 이렇게 합시다. 이제 저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한時間동안 本質的 基本問題는 하나도 討論도 못하고.

南(任台淳) : 아니 가만계세요 ! 내가 얘기 아직 안끝냈으니까.

그래서 지금 貴側이 雙方 對比表를 내 놓았는데 이제 우리는 雙方 對比表를 檢討할 段階는 아닙니다. 이미 이 段階를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雙方이 合意書 草案을 내놓고 檢討를 해야 되는 段階라고 봅니다.

그래서 合意書 草案을 내놓고 文項을 보아 가면 되는거지 이제 또다시 새해에 들어서부터 對比表를 놓고 또 이거 얘기할 그런 段階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問題는 簡單합니다. 貴側에서 이제 「附則條項을 設定한다」하는데 대해서 同意를 하신거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同意를 못하십니까?

北(장 응) : 명백히 이렇게 합시다. 合意書 內容을 어떻게 하는가 하며는 序文이 있어야 되고 10 個項 있어야 되고 發效날짜 있어야 되고 그건 뭐 合意書에 應當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미 말하던 保障裝置問題가 있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共同推進機構 運營細則 別途로 作成하는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必要한게 뭐 있는지. 이제 任先生이랑 曺先生이랑 말씀을 했는데.....

南(任台淳) : 아니 그래서 貴側에서는 合意書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北(장 응) : 그쪽에서 다 準備해 가지고 나왔다니깐 그것 좀 봅시다.

南(任台淳) : 우리는 가지고 나왔는데 貴側은 가지고 나오셨어요? 안가지

고 나오셨어요?

北(장 응) : 그것 먼저 봅시다.

南(任台淳) : 먼저 보는게 아니고 貴側이 오늘 合意事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안가지고 나오셨습니까?

北(장 응) : 글썄 그것 먼저 다 準備해 가지고 나왔다니까.

南(任台淳) : 아니 우리는 다 準備해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貴側은 合意書 文案을 準備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北(장 응) : 우리 合意書 準備를 했어요.

南(任台淳) : 貴側도 準備를 했죠?

北(장 응) : 10 個項目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南(任台淳) : 하여간 어떻게 했든지 基本的으로 雙方이 合意書 文案을 準備를 한거기 때문에 貴側은 現在 合意書 文案에서 項目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0 個項만 되어 있다.

北(장 응) : 10 個項으로 되어 있습니다.

南(任台淳) : 그러면 附則은 없는 건가요?

北(장 응) : 예. 附則이라는 것 없습니다. 附則이라는게 또 우리 南北 다른 會談歷史에도 없죠.

南(任台淳) : 그러면 그냥 10 個項 해 놓고서 「以上과 같이 合意했다」이 겁니까?

北(장 응) : 10 個項 合意書を 만들고 이쪽 共同推進機構運營과 關聯한 細則은 또 따로 合意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處理하면 되는 거고.



南(任台淳) : 그러니까 10 個項하고 나서는 아무 것도 없이 날짜만 넣고  
署名만 하는 걸로?

北(장 응) : 署名을 해야죠. 그래서 發效날짜 問題가 있으니까.

南(任台淳) : 그런데 貴側은 發效날짜만 認定을 하는데 保障裝置도 認定을  
하시는 거죠?

北(장 응) : 예. 保障裝置도 합시다.

南(任台淳) : 그래서 우리 保障裝置를 하자는 것에 同意를 하시고 發效日  
字에 同意를 하시고 共同推進機構에 同意를 하시고 해서 적어도 이제 이  
保障裝置의 內容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意見이 조금  
엇갈리는 部分이 있구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會議 時間도 벌써 1 時間이 넘었는데 서  
로 案을 내놓고 그것을 밝혀나가는 이런 立場으로 會談을 進行을 합시  
다.

먼저 우리側 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北(장 응) : 그쪽 案을 주십시오.

南(任台淳) : 가만히 지금 우리가 몇가지 案을 準備를 했기 때문에 어느  
案을 드리는게 좋겠는지 判斷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건 좀  
諒解를 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여러가지 案을 생각해 봤으니까.

南(曹英承) : 그런데 내가 조금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北(김세진) : 그러니까…….

南(任台淳) :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우리 合意書 案을 얘기를 하겠습

니다.

北(허혁필) : 그걸 하나 주십시오.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드릴테니까.

우리 合意書 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案」입니다.

그래서 序文을 이렇게 構成을 해 봤는데.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위원회는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89年 3月 9日 第1次會談을 가진 이래 ( )차례의 本會談과 (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졌다.

雙方은 民族和合과 스포츠精神에 입각하여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함으로써 南北體育人들의 團合된 모습과 優秀한 기량을 내외에 떨치고 體育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증진하여 平和統一을 促進하는 契機가 될 것을 希望하면서 다음과 같은 事項에 合意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前文입니다. 그리고 여기 10個項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文案整理를 할적에 다시 確認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10個項目 自體에 대한 낭독은 省略하고 그대신 내가 이것을 貴側에 넘겨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個項이 지나고 나면 여기 附則條項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設定했습니다.

北(허혁필) : 10 個項 다음에 附則입니까?

南(任台淳) : 예.

### 附 則

1. 本 合意書 9 項 아目에서 定한 바에 따라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별도로 作成한다.(附屬合意書 1)
2. 10 個項 및 附則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는 별도로 作成한다.  
(附屬合意書 2)
3. 雙方은 單一팀 構成의 분위기를 造成하고 單一팀 構成意志를 實證하며, 나아가 南北間의 전반적인 體育交流의 길을 터나가기 위해서 共同委員會 發足以前에 親善交換競技의 개최와 施設踏査班의 교환을 實施한다.(附屬合意書 3)
4. 雙方은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參加할 것에 원칙적으로 合意한 사실과 單一팀 參加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個別參加하기로 하였다는 內容 등이 包含된 雙方 NOC委員長 共同名義의 서한을 本 合意書 效力發生日로부터 15 일이내에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發送하며(附屬合意書 4), 選手團構成이 完了되어 大會參加엔트리를 제출하기 전에는 同 書翰 이외에 單一팀 構成·參加事實을 大會組織委員會 및 國際體育機構에 單獨으로 通報하거나 대내외적 宣傳目的에 利用할 수 없다.
5. 雙方은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하여 相對側의 內政, 法律制度, 軍事訓

練 등 體育外的 問題를 提起해서는 안된다.

6. 雙方은 單一팀 構成・參加와 有關한 人的往來의 편의를 위하여 自己側 地域에서 相對側 輸送手段의 運行을 保障한다.
7. 雙方은 單一팀 構成・參加와 有關한 다음과 같은 推進日程을 준수한다.
  - 가.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은 1990年 2月 15日부터 設置 完了한다.
  - 나. 南北往來 合同訓練은 1990年 3月 15日 이전에 始作하여 1990年 4月 15日 이전에 終了한다.
  - 다. 選手選拔戰은 1990年 4月 20日에 始作하여 1990年 5月 30日 이전에 終了한다.
  - 라. 選手團은 1990年 6月 15日 이전에 構成 完了한다.
  - 마. 參加申請書는 1990年 6月 22日 이전에 제출한다.
8. 雙方은 合意書 및 附屬合意書의 實效를 保障하는 조치로서 雙方當局의 保障覺書 文本을 합의서 署名과 동시에 交換하며 이를 雙方當局이 각기 發表한다.
9. 이상과 같은 諸般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아니할 경우 單一팀 構成・參加와 有關한 일체의 合意는 無效가 되며 雙方은 個別팀으로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參加할 수 있다.
10. 本 合意書는 1990年 2月 1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그래서 1990年 1月 며칠날 署名日字를 板門店에서 한걸로 하고 그리

고 雙方 올림픽委員會의 委任에 의해서 南北體育會談 雙方 首席代表가 連署를 하는 이러한 것으로 合意書 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貴側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만들어온 案들을 전부 貴側에 넘겨 드릴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側의 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北(장웅): 그게 저번 案하고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南(任台淳): 아니 그러니까 내가 簡略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序文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雙方은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코리아選手團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 第9項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規定에 依據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以下 「共同委員會」라 한다) 및 「코리아選手團 共同事務局」(以下 「共同事務局」이라 한다)의 構成·運營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그래서 이제 즉 內容이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 몇가지 部分에 대해서 보다 좀 具體化하고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部分的으로 조금씩 字句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北(장웅): 그러니까 內容이 달라졌습니까?

南(任台淳): 內容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고 그러나 例컨대 共同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例를 들면 『共同事務局은 雙方 各其 局長 1名, 副局長 2名 및 關係人員 40名으로 構成하며, 雙方은 그 중에서 相對側 共同事務局에 副局長 1名-1名은 派遣

하는 側의 團長이 되겠습니다 一 과 連絡人員 20 名을 派遣・常駐시킨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內容의 變動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表現上에 具體化를 시킨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準備해온 案들을 貴  
側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의 이 項目은 지난번에도 한번 朗讀이 된 內容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朗讀은 省略을 하고 이것 역시 文案整理를 위한 討議때에  
檢討를 하도록 하고 오늘 朗讀하는 것은 내가 省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附屬合意書を 네가지를 하자고 했는데 그 內容이  
貴側도 궁금하실 터이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附屬合意書 2」가 되겠죠.

### 10 個項 內容 및 附則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10 個項 內  
容 및 附則의 用語解釋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第 1 項 “나” 目的 “提議한다” 함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側  
이 雙方이 合意한 單一팀 呼稱 中國語 表記를 採擇・使用하도록 共  
同으로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2. 第 4 項 “나” 目的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段階에서 公開的  
으로 實施한다” 함은 合同訓練이 終了된 後에 自己側 觀衆과 相對側

參觀團이 競技를 自由롭게 觀覽하고 自己側 地域과 相對側 地域에서 열리는 競技를 라디오 및 TV로 中繼하며 相對側의 라디오 및 TV 中繼를 保障하는 등 競技觀覽과 取材 및 報道가 自由로운 가운데 選拔戰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選拔戰 때 南北을 往來하는 人員의 規模는 選手·任員의 경우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고, 支援人員 및 記者團은 各各 100名 內外, 參觀團은 500名에서 2,000名 規模로 한다.

3. 第4項 “다” 目的 “서울·平壤 등 南北의 地域”이라 함은 서울과 平壤 以外の 다른 都市도 包含됨을 말하며, 南側 地域은 서울·釜山·大邱·光州·大田을, 北側 地域은 平壤·南浦·元山·新義州·咸興을 選拔戰 場所로 한다.

4. 第4項 “라” 目中 (1) 記錄種目 (나)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記錄도 考慮한다”, (2) 採點種目 (나)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點數도 考慮한다” 및 (3) 鬪技種目 (나)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內容도 考慮한다” 함은 合同訓練期間中에는 뛰어난 實力을 發揮하던 選手가 選拔戰에서 不振한 成績을 거두었을 경우에 雙方 監督·코치間的 合意로 同選手를 包含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5. 第4項 “라” 目中 (3) 鬪技種目 (나)의 “國際大會”라함은 1988年 올림픽競技大會와 1988年·89년에 열린 아시아 및 世界選手權大會를 말한다.

6. 第4項 “라”目中 (4) 球技種目 (나)의 “一部”라 함은 雙方의 競技力을 考慮하여 種目別 參加定員의 最小 2割 乃至 最大 4割 範圍內에서 合意한 人員數를 말한다.
7. 第5項 “다”目中 “相對方의 固有한 訓練方法을 尊重한다”함은 技術的 事項은 물론, 服裝着用 및 訓練裝備 使用에 대하여는 各其 便宜에 따름을 말한다.
8. 第5項 “사”目中 “合同訓練 및 強化訓練은 種目別로 南北을 相互 往來하면서 實施한다”함은 一方地域에서 15日間씩 兩側 地域을 번갈아 가며 實施함을 말하며, 이 경우 南北을 往來하는 選手 및 任員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고, 支援人員 및 記者團은 各各 50名 內外로 한다.
9. 第6項 “다”目的 團長은 選手團을 指揮·監督하고 總監督 任命 등 選手團을 管理함에 있어 提起되는 모든 問題를 處理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10. 第6項 “바”目的 “可能的 限 均衡을 顯著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한다”함은 單一팀 選手團에서 어느 一方이 차지하는 比率이 7割을 超過하지 않도록 함을 말한다.
11. 第9項 “나”目的 “合意가 이루어진 後”라 함은 雙方 合意內容의 效力發生日 以後를 말한다.



12. 第9項 “라” 目的 “번갈아 1回 以上 開催한다” 함은 共同委員會 會議을 서울과 平壤에서 輪番制로 開催하되 各其 地域에서 月 1回 以上 開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달이면 한달동안에 서울에서도 한번, 平壤에서도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13. 合意書 附則 第6項의 “相對側 輸送手段의 運行을 保障한다” 中 “輸送手段” 이라 함은 自動車, 船舶, 航空機 등 모든 交通手段을 말하며, “運行을 保障한다” 함은 陸路는 板門店—行事場, 海路는 仁川—南浦 및 釜山—元山, 空路는 金浦飛行場—順安飛行場間의 運行을 保障함을 말한다.

14. 其他 合意書 內容의 解釋과 關聯하여 南北 雙方間에 異見이 있을 경우 共同委員會의 協議·決定에 따른다.

그리고 그다음에 날짜가 들어가고 雙方 首席代表의 署名欄이 들어갑니다.

北(장 응) : 또 있습니까?

南(任台淳) : 다음에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우리 準備 다 해 왔어요.

다음에 「附屬合意書 3」이 되겠습니다.

#### 親善交換競技 開催 및 施設踏査班 相互交換에 관한 合意書

雙方은 南北單一팀 構成·參加를 위한 霧圍氣 造成과 單一팀 構成意志를 實證하기 위해 親善交換競技를 開催하고 施設踏査班을 相互 交換하며

앞으로 南北間의 全般的인 體育交流 實現을 위해 共同努力하기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親善交換競技(以下「親善競技」라 한다)는 1990年 2月 3日 平壤에서, 2月 10日 서울에서 公開裡에 開催한다.
2. 親善競技의 種目은 男女 卓球 및 男女 排球로 하고 競技大會는 3泊 4日 日程으로 서울과 平壤에서 各各 實施한다.
3. 親善競技에 參加할 選手 및 任員數는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定員數 정도로 하며, 支援人員 및 記者團은 各各 50名 內外, 參觀團은 500名 內外로 한다.
4. 親善競技는 雙方 올림픽委員會가 主管하고 大會運營은 國際競技規則에 準하며 審判은 招請側에서 主審을, 訪問側에서 副審을 맡는다.
5. 親善競技의 公式的 開·閉會 儀式은 省略한다.
6. 雙方 選手團 服裝은 各기 便利한대로 한다.
7. 親善競技에 參加하는 相對側 選手, 任員, 支援人員, 記者團, 參觀團의 滯留에 따른 諸般經費는 招請側에서 負擔한다.
8. 雙方은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選手訓練과 選拔戰 實施場所 등 體育施設의 點檢을 위한 施設踏查班을 1990年 2月 2日 相互 同時交換하며, 滯留期間은 7日 정도로 한다.

9. 施設踏査班은 雙方 각기 體育專門家 30名, 記者團 20名 도함 50名  
으로 構成한다.

10. 雙方은 親善競技 및 施設踏査班 交換과 關聯한 關係人員들의 南北往  
來에 다른 身邊安全保障, 便宜提供, 訪問節次 問題에 대해 先例를 準  
用한다.

11. 雙方은 앞으로 親善競技의 交換, 雙方 開催 國際體育行事 相互 招請·  
參加, 體育分野 세미나 및 學術會議의 共同開催 등 南北間의 全般的  
인 體育交流·協力을 推進한다.

이렇게 하고서 날짜가 들어가고 署名欄이 들어갑니다.

北(김세진) : 또 있습니까?

南(任台淳)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附屬合意書 4」에 관한 겁니다.

北(장 응) : 예, 읽으십시오. 다 읽으십시오.

南(任台淳) :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아시아올림픽評議  
會에 보낼 書翰에 관한 合意書」.

南(朴秀蒼) : 제가 한번 읽을까요?

南(任台淳) : 예. 좀 한번 읽으실래요?

北(허혁필) : 任代表先生!

南(任台淳) : 예.

北(허혁필) : 그거 다섯가지 지금 合意書를 읽는데…….

南(任台淳) : 아니 가만히 계세요.

北(허혁필) : 아니 우리 오늘 새로提起된 問題도 많고 또 研究된 內容

도 있고 지금 전혀 새롭게提起된 問題도 있고 한데 그걸 넘겨주면 제가 이제라도 雙方案을 한번 討論해 봐야 되겠고…….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 우리 案 좀 하나 지금 내가 읽은 內容을 다 가져 오세요.

南(朴秀蒼) : 지금 넘겨 드릴게요.

北(허혁필) : 아니 時間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討議조차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혀 새롭게提起된 問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討議하는 意味에서도 다 된 것 주십시오.

南(任台淳) : 아니 그것 읽으세요.

南(朴秀蒼) : 예.

####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아시아올림픽 評議會에 보낼 書翰에 관한 合意書

雙方은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하여 大會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書翰을 보내기로 合意하였다.

#### 合 意 書 翰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委員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委員會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는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參加하기 위한 問題를 論議하기 위하여 南北體育人間에 차례의 本會談과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진 結果 1990 年 月 日 單一팀 構成・參加에 原則的인 合意를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選手訓練과 選拔戰 開催 및 選手團 構成 등 單一팀 參加에 따르는 諸般問題 解決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雙方的 努力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事情으로 인하여 單一팀 構成·參加가 어렵게 될 境遇에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OCA會員 資格으로 個別 參加하기로 合意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一般 엔트리를 提出하기 前까지는 貴 組織委員會와의 連絡·接觸 등 雙方 올림픽委員會의 固有한 對外的 機能은 그대로 存續하게 되며, 同 엔트리를 提出하고 난 以後에는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가 貴 組織委員會와의 連絡·接觸 등의 機能을 맡게 될 것입니다.

南北單一팀의 呼稱과 關聯하여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英語로는 KOREA (略字: KOR)로 하며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하되 「高麗」로는 表記하지 않으며, 中國語로는 可禮亞로 表記하도록 合意하였는 바, 貴 委員會가 위의 表記를 採擇·使用하여 줄 것을 正式으로 要請합니다.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이 機會를 빌어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가 成功的으로 開催되기를 祈願합니다.

1990年 月 日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金鍾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김유순

## 合 意 書 翰

아시아올림픽評議會 會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委員會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는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參加하기 위한 問題를 論議하기 위하여 南北體育人間에 차례의 本會談과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진 結果 1990年 月 日 單一팀 構成·參加에 原則적인 合意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單一팀 呼稱은 英語로 KOREA (略字: KOR)로 表記하기로 合意하였습니다.

앞으로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選手訓練과 選拔戰 開催 및 選手團 構成 등 單一팀 參加에 따르는 諸般問題 解決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 입니다.

다만, 雙方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불가피한 事情으로 單一팀 構成·參加가 어렵게 될 境遇에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OCA會員 資格으로 個別 參加하기로 合意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貴 評議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1990年 月 日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金鍾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김유순

南(任台淳): 그래 가지고 以上이 合意書에 附屬된 文書들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附加해서 雙方間에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第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 合意 履行을 위한 雙方 當局의 保障覺書가 어떤 內容으로 되던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雙方이 合意를 해서 雙方 當局에 建議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런 內容으로 建議를 하자 하는 것으로 準備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側の 表現과 貴側것 까지도 當局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別途 準備를 해 봤는데 우선 우리側 案을 읽어보고 貴側 總理가 署名을 하도록 이렇게 案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側 案을 읽어보겠습니다.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  
合意 履行을 위한 保障覺書(案)

大韓民國 政府는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 雙方이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하는 것이 온 겨레의 念願에 符合되는 것임을 確信하면서, 1990 年 1 月 日 南北體育會談 雙方 代表團間의 合意事項이 誠實히 履行되도록 積極 支援・協力할 것을 保障한다.

1990 年 1 月 日

大 韓 民 國

國 務 總 理 姜 英 勳

그리고 貴側 案은 貴側 總理 名義로 해 봤습니다. 이것도 넘겨 드립니다. 우리 案이니까.

北(장웅) : 말씀 다 했습니까?

南(任台淳) : 우리側の 合意書 案은 以上과 같습니다.

北(장웅) :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얘기를 할까요?

南(任台淳) : 예, 말씀하시죠.

北(장웅) : 이제 貴側에서 내놓은 案들을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새로운 問題들이 많이 오늘 提起됐기 때문에 研究해야 될 問題들이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貴側의 案을 들으면서 問題로 되는 것은 그 內容들에 唯一팀이 안되는 것으로 前提로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별개의 팀으로 不得已한 사정으로 해서 안되는 경우에 別個의 팀으로 간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近9個月에 걸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되는데, 1年 동안에 걸쳐서 唯一팀을 成事시키자고 本會談을 여섯번 했고 지금 오늘까지 實務代表接觸을 네번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결국에 이 時點에서 「唯一팀이 안되면 따로 따로 가겠습니다」하는 것을 文案에다 넣었는데 이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부득이한 事情이라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唯一팀이 안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은 必要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唯一팀 構成과는 無關한 당초 雙方이 合意한 合意事項,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을 合意해서 雙方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우리 올림픽委員會 김유순委員長이 지난해 12月 21日에 貴側에 便紙를 보내서 이 會談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論議하고 지금 實務代表接觸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合意點을 찾아서 結實을 맺어 놓은 것은 唯一팀을 構成시키기 위한 討議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親善競技, 交換競技를 唯一팀 問題에다가 결부시켰는데 이것은 會談議題에 屬하는 問題가 아니다. 그리고 任先生이나 내가 이 問題를 가지고 여기서 討論할 바가 못된다.

다음으로 이제 貴側案을 들으면서 느껴지는거는 이미 合意한 問題들을 또다시 變動시키는 것이 있다. 이제 交通手段問題가 提起됐는데 一切 便宜를 招請側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保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合意한 合意事項에 이것은 違反되는 것입니다. 그 必要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論議의 가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共同訓練날짜, 選手選拔競技 날짜問題를 이제 또다르게 정했는데 4月달에 앞당겨 놓았는데 이미 우리가 本會談에서 討論된 것은 5月末, 6月初에 하자고 이미 合意된 事項입니다. 그래서 合意事項에 비추어서 앞당긴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이미 合意된 合意事項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問題들은 우리가 討議할 必要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貴側에서 내놓은 것들을 보며는 이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對象이 되지 않는 問題 또 體育會談과 관련이 없는 問題들을 들고 나와서 좀 問題의 複雜性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들은 빼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實務代表들에게 本會談에서 부과된 10個項 그리고 共同推進機構 運營細則, 雙方이 具體적으로 研究했고 곧 合意를 이룰 수 있는 이 運營細則에 대한 問題를 討議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10個項이 기본 뼈대구라고 했고 基本問題니까 10個項 文案整理를 해서 일단 結束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結束하지 않고 또 다른 問題들을 내 놓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옛날말을 들면 「강태공의 뉘시질」처럼 되겠는데 아무리 뉘시질해야 한마리 고기도 못잡고 그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강태공이 뉘시질만 계속하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지워진 任務, 實務代表接觸에 부과된 이러한 任務들을 遂行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南(任台淳) : 그래서 지금…….

北(장 옹) : 다시 말씀드리면 제 얘길 들으십시오.

任先生 오래 말씀하셨는데 나도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왜그런가 하면 10個項 問題를 다시 새롭게 是是非非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0個項 討議가 지금 3月9日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討論해서 合意를 다 본 問題입니다.

根本問題고, 基本問題이기 때문에 이미 討議된 것 뿐을 完全 結束하지 않고 거기에 또 다른 살들을 갖다가 붙이는데 이것이 도대체 理解를 할 수 없습니다.

왜그런가 이것은 10個項과 運營細則 問題는 이미 雙方이 다 基本的으로 基本上 合意했습니다. 合意됐고 또 雙方 本會談 團長들이 이 文項整理를 하는 것을 이번 實務代表接觸에 基本任務로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根本問題 討議를 제껴놓고, 살붙이는 것을 먼저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順理에도 맞지 않고 理致上 맞지 않지 않습니까? 論理가 맞질 않는다.

그러므로 10個項, 이미 提起된 10個項 討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다 文件을 넘겨 받았는데 넘겨 받아서 좀더

研究할 問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당장에서는 10 個項 討議를 빨리 해서 10 個項을 完全히 結속을 해야겠다. 그리고 運營細則問題 討議를 完全히 結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은 거기서 파생되는 問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任先生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저 대부분이 다분히 共同委員會 소관에 속하는 問題가 많습니다.

이제 共同委員會 소관에 속하는 問題를 나하고 任先生하고 다 討論해 버리게 되면 우리 김유순委員長동지하고 金鍾烈先生 共同委員會에서 나머지 問題 무얼 더 討論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時間만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基本 뼈를 갖춰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合意書를 우리도 가져 왔는데. (우리側 代表에 傳達)

南(任台淳) : 合意書를 먼저…….

北(장 응) : 이거 10 個項, 다른 變動이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貴側에서 먼저번에.

南(任台淳) : (北側 文件을 보며) 運營案.

北(장 응) : 그게 일정한 文案들을, 表現들을 整理한 것이 있으니까 큰 變動은 없고 그래서 討論을 합시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뒤에다가 名單, 아니 그런데 뭐 이거 合意書가 날 짜도 없는 合意書가 있어요?

北(장 응) : 아니 날짜야 18 日날 하겠는지, 18 日날 하는걸로 봐야 되니까.

南(任台淳) : 서명란만 하셨구만 그냥.

北(장 응) : 18 日날 해야 되니까.

南(任台淳) : 이거는 方案이고 合意書가 아니고.

北(장 응) : 그러니까 方案에 合意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뒤 10 個項 討議를 합시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뭐야 10 個項을 나열해 놓고.

北(장 응) : 10 個項 問題를 먼저 合意를 하자.

南(任台淳) : 序文돼 있고 그리고 共同委員會 構成에 대해서 方案을 다시 내놓으셨고 方案들은 合意를, 우리 方案들에 同意를 하셨으니까 合意書를 내는걸로 간주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北(장 응) : 그러니까 完全히 完結된거지요. 뭐냐하면 6 次本會談에서 또다시 再次 合意된거 있으니까 文項整理를 해서.....

南(任台淳) : 그러니까 合意書 案을 또 내놓으시겠습니까?

北(장 응) : 合意書를 내놓았으니까 對北表에 있는거하고 같습니다. 內容은 같으니까 그것 보시면서.

南(任台淳) : 그러니까 方案은 아직 合意書가 아닌 겁니까 아직은?

北(김세진) : 아니 그거 같은 겁니다.

北(장 응) : 方案도 合意書죠, 合意하면 되는 거니까.

南(任台淳) : 方案도 앞으로 合意하면 되는 것이다. 方案은 그러니까 앞으로 合意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北(장 응) : 뼈를 해놓자.

南(任台淳) : 알겠습니다.

그래서 貴側의 지금 合意書 案하고 方案을 보니까 이거 오늘 討論이 原點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附則條項을 설정을 할 必要性에 대해서 貴側도 그 必要性을 認定을 오늘 接觸에서도 하셨다고 나는 인정이 되는데 貴側 合意書 草案을 보니까 附則部分을 설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體育外的 問題를 예컨대 舉論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든가 貴側이 처음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記憶이 되는데 예컨대 심지어는 不必要한 問題를 가지고 論爭을 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이러한 表現까지도 하셨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實效性을 保障하는 問題 여기서 대해서도 必要性을 認定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명백하게 合意書에 包含시키는데 대해서는 지금 合意書文案을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적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北(장 웅) : 任先生님 이제 그 問題에 대한 것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南(任台淳) : 아니 조금만 내 말씀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불적에 지금 雙方이 合意書 案을 일단 서로 交換을 한 狀態인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分明하게 討議가 먼저 되어야 될 部分은 附則條項의 설정이 必要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貴側이 同意를 한 겁니다.

北(장 웅) : 履行保障裝置 問題지요? 履行保障裝置問題.

南(任台淳) : 그래서 이 部分에 대해서 附則, 아니 왜냐하면 履行保障裝置만이 附則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共同委員會運營細則이라든가 또는 效力條項이라든가 이런 內容들이 여러가지 들어 가는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附則의 設定이 必要하다. 그래서 附則設定의 內容에 대해서는 뭐

조금더 討議를 해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貴側이 우리案에 同意를 하는 部分도 있고 異意를 提起하는 部分도 있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附則의 內容에 대해서는 討論을 해보야 하되 附則條項이 必要하는 것 自體는 이미 肯定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貴側 合意書案에다 附則을 設定해 넣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서로가 이제 雙方 合意事項에 넣는다 하는데 대해서만 同意를 하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內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討論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實務的으로 討論을 하면 順序대로 해나가지요.

北(장 응): 다 말씀 했습니까?

南(任台淳): 예.

北(장 응): 글썄 附則問題데, 附則問題 오늘 이제 貴側에서 提起를 했습니다. 提起를 했는데 이제 말씀 금방 드렸지만 이 共同委員會 所管에 속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明白하니, 明白히 6次本會談에서 우리 代表團 김형진 단장이 合意한 內容은 履行補完裝置問題를 討論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履行補完裝置로 되겠으니 細則이 되겠는지.

南(任台淳): 補完裝置가 아니라 保障裝置.

北(장 응): 保障裝置, 補完裝置라고도 했어요. 張忠植首席代表 補完, 補完이라 했어요.

南(任台淳): 補完·保障裝置죠.

北(장 응): 예 그래 補完裝置라고 해도 좋고 保障裝置라고 해도 좋고 지금 말은 뭐 그저 이렇게 해도 같으데. 그래서 이런 問題에서 同意

를 했습니다. 그걸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고.

이제 任先生이 지금 當局의 擔保問題를 우리가 漏落시켰다.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했는데 그것은 貴側이 내놓은 共同推進機構 運營方案에 있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同意를 했고, 同意를 우리가 했습니다. 同意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明白히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明白히 하게 되어 있는거다. 그런데 이걸 또 이제 附則에다 넣고 우리는 細則에도, 運營方案에도 넣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우리 立場이 그저 다르게 없고 다르게 없다,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討議順序가 이것 附則부터 이것 討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나는 意見を 달리 합니다. 왜 달리하는가 理解를 잘하십시오. 이제 曲解하시는 것 같은데.

南(任台淳): 아니 曲解, 뭐 어느 點이 曲解입니까?

北(장웅): 예, 曲解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理解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저 다시 이야기 하는데 討議에서 가장 基礎的인 文件이 있지 않느냐 討議에서? 合意해야 될 가장 根本的인 것 있지 않느냐? 根本的인 것이 어느건가 한번 보자.

이 모든 問題들에서 根本的인 것은 10 個項目이다. 이것이 合意돼야 거기에 살을 붙이고 뭐 履行保障·補完을 하고 附則을 하건 細則을 하건 거기에 歸結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그저 任先生도 그저 말로만 『이건 合意가 된겁니다』하고 이것은 文項整理를 해서 일단 合意를 하고 『이것은 完結된 것이다』해놓고 討論합니다. 討論 안하겠다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도 先行해야 될게 附則이다. 그래 여기에 나는 意見を 달리 합니다.

南(任台淳): 아이 그것참 理解를 참 잘못하시는데.

北(장웅): 그러므로 이거 뭐냐하면 그 이거 10個項目, 10個項目에 대한 問題, 10個項目問題는 이젠 이제 아까 曹先生도 말씀을 했는데 거의 다 약간 지금 이제 그쪽에서 내놓은 것 하고 지금 檢討를 해보면 一部 그저 글자 몇개씩 조금 달라지는게 있었는데…….

南(任台淳): 아니 장웅先生! 내가 몇차례를 얘기해야지 理解를, 納得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10個項과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部分은 貴側도 이미 同意를 했고 또 우리가 지난번 세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졌고 또 그리고 6次 本會談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基本的으로 意見一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確認을 한 것입니다 그건.

北(장웅):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南(任台淳): 아니 그러니까 基本的으로 一致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文項 整理만 남았다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部分은. 10個項에 대해서는 文項整理만 남았기 때문에 이걸 文項整理때 論議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여기에 대해서도 貴側이 이제 지난번에 同意를 表示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貴側에서 몇분동안 짝 훑어보고서는 우리側 案에 선뜻 同意를 하시기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거 南北關係에서 그런 事例가 아마 지금까지 없었으리라 보는데, 하여간 선뜻 同意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同意를하신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案대로 따라 오시겠다 하는데 대해서 이미 同意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文項整理를 하면 될 事項으로 되어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 部分에 대해서는 文項整理 段階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合意書 構成要素를 놓고 볼적에 다른 지금 기본 뼈다귀라고 해도 좋고 基本骨格이라고 해도 좋고 뭐 척추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 뭐 그 部分에 대해서는 이제 文項整理를 남겨놓고 있고 다른 부분이 다 文項整理段階가 돼야지만 이게 合意書 全體가 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部分에 대한 討議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北(장 웅) :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제 任先生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깐요.

南(曹英承) :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北(장 웅) :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南(任台淳) :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 보세요. 내가 說明이 充分하지 못한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안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뭐,

南(장 웅) : 아니 오늘 任先生 지금 한 2時間 했는데 한時間 한 三十分은 任先生이 했는데.

南(任台淳) :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을 또.

北(장 웅) : 난 뭐 10分밖에 얘기를 안했으니깐, 그러니까 10個項은 그저 明白히 다 合意가 된 것이다 雙方에서. 다시한번 이제 그…….

南(任台淳) : 文案整理를 남겨놓고 있다 이거죠 뭐.

北(김세진) : 그러니까 完結이 안됐다는 이야기?

北(장 옹) : 그러니까 完結이 안됐다는 겁니까?

南(任台淳) : 그렇죠 完結은 안됐죠. 合意書가 되어야지 完結이 되는거지.

北(장 옹) : 글썄 그걸 完結을 그게 기둥인데 그걸 完結하자는 게지.

南(任台淳) : 아니 그러면 토막토막 完結을 합니까?

北(장 옹) : 예 그래서요 序文…….

南(任台淳) : 토막토막 完結을 할 수는 없는거지, 아니 그런 얘기를…….

北(장 옹) : 그저, 아니 제가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貴側에서 이제 提案한 序文에 同意합니다. 序文, 前文이라고 했는데 前文이라고 할까, 序文에 同意를 합니다. 그리고 10 個項은 그대로 同意를 합니다. 同意를 했죠? 合意됐죠 다? 됐습니까?

南(曹英承) : 말씀을 하세요.

北(장 옹) : 예 明白히, 明白히 아니 이거 저 明白히…….

南(任台淳) : 이야기를 꼭 하세요. 뭐 그러면 내가 確認을 할테니까.

北(장 옹) : 그다음에 共同推進機構, 共同推進機構運營細則이 이미 合意되었습니다. 合意했었습죠? 合意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貴側에서 이제 提示한, 내놓은 그 當局保障覺書 案에 同意합니다. 그리고 合意書 發效時日問題도 同意합니다. 合意書 發效時日問題 同意합니다. 用語解釋問題, 用語解釋合意書 問題는 研究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研究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다시 그걸 討論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립니다. 이제 合意書 內容과 關聯해서 序文에 同意를 합니다. 明白히 합니다. 10 個項은 이미 合意되었습니다 10 個項은, 共同推進機

構運營方案, 運營細則, 運營細則이라고 합시다. 運營細則이 이미 合意되었습니다. 當局保障覺書, 保障覺書案에 同意를 합니다. 合意書 發效時日問題 同意를 합니다.

다시 明白히 하는데 用語解釋合意書 問題는 더 研究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文案整理를 합시다 文案整理를.

南(曹英承): 말씀 다 하셨습니까?

北(장 웅): 예, 예. 된것은, 된것은 文案整理를 합시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歲月이 限定이 없는데, 그래서 曹先生 이애기를 하십시오.

南(曹英承): 이걸 좀 效率的으로 하고 또 앞으로 일들을 튼튼히 해 나가게 하는 기틀을 우리가 마련한다는 그런 立場에서 몇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웅代表께서 前文에 同意한다 하시니까 상당히 큰 發展이고 10 個項은 이미 우리가 많은 討議를 했기 때문에 거의 合意된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다 意見이 一致되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部分이 뭐냐하면 그 細則, 우리가 말하는 그 構成에 關한 合意書, 이걸 이미 合意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내놓은 것을 事實은 貴側은 그 짧은 時間에 꼭 훑어보고 그냥 받아 들였다 이렇게 한 部分입니다.

그 部分中에서 좀더 追加되고 補完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 共同委員會 委員長을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으로 했다가 相互 좀 不便할 것 같아서 共同委員會 뭐 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級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거나든지 또 共同委員會 全體가 20 名이 움직이면 不便할 경우가 생기면 相

互 合意下에 運營委員會를 두어서 한 6名정도가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制度를 導入한다든지 또 「共同事務局 事務室을 올림픽委員會 建物內에 둔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融通性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相互 便利한대로 한다 하는등 몇가지 그 修正 내지 補完·追加한 部分들이 좀 있습니다. 그 部分들을 잘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發效問題, 覺書問題, 用語解釋問題 그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單獨參加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約束問題, 親善競技問題, 交通手段保障問題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이 相互論議된 것중에 屬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장웅代表가 細則은 이미 合意했고 다른問題는 우리 同意한다 그랬고 覺書도 좋다고 그랬고 用語解釋도 좋다고 앞으로 研究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 課題로 남겨놓고, 다만 우리가 오늘 다들은 內容中에 만일 우리의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않는 境遇에는 항상 個別的으로 參加할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確認 그 問題하고 親善競技問題하고 交通手段保障問題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議題밖에 있거나 오늘 다루어야 할 問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 하는 意見を 이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런 一致되는 部分 또 一致되지 않은 部分이 있다 하는 것을 서로 認定을 합시다. 認定을 해 놓고 다만 내가 하나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정말 이 歷史的이고 어렵고 重大하고 일이 많은 이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關한 合意를 봄에 있어서 그 文書를, 最終的인 文書를 作成하는 過程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形式的인 要件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避해 가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내가 충정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前文이 하나, 精神이 하나 表現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合意한 10 個項을 넣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前文의 精神과 10 個項 內容을 土臺로 한 이 事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다른 여러가지 問題들을 한군데 엮는 附則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附則의 內容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은 討論할 餘地가 있지마는 附則을 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法律을 봐도 重大한 法律은 다 있게 되었어요. 南北間에 이 以上 重大한 그런 文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이 散漫하게 하지 말고 前文, 10 個項, 附則이라는 큰 테두리를 놓고 그 附則內容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할거나 하는 것을 順序대로 討論해 나가는 形式으로 일단 討論을 끝내고 그다음에 文案整理에 들어가는 이런 順序로 해야지 效率的이고 단단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北(김세진) : 아 그러니까 曹先生 말씀 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合意書를 作成하자는거 이자 그 討論 많이 했고 우리 이제 그 書記長동무가 合意書는 이러한 틀로서 하자 해서 意見を 우리 立場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立場에 대해서 다른 意見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提起되는게 아직 討議도 못하고 文案整理 들어가자 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이자 또 장동무가 다 줄것은 다 주었으니까 이제 남은게 무인가? 하나하나 이제는 完結해 나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南(曹英承) : 무엇을 完結해 나가겠다는거요.

北(김세진) : 그러니까 그 첫 工程이 무엇인가? 이걸 10 個事項에 대한 文案整理하자 했으니까, 提起된 것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討論하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해서 完結이 되면 그다음엔 그 方案이라고 거기서 냈지만 우리 細則이라고 했는데,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에 대한 것 그거 이미 討論하던 거니까 그것도 하나 完結하고 其他 이제 提起되는 問題들을 이자 우리 基本上 우리 意見 주었으니까 그것도 文案整理할 것들이 있으면 文案整理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完結해 나가자는 게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意見を 주는거는…….

南(曹英承) : 그러니까 김세진代表가 말씀하는거 하고 나하고는 거의 같아요. 이게 같은데…….

北(김세진) : 그럼 같지, 그런데 자주 意見を 相異해서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렇게 하자는 거란 말이요. 그러나 우리 立場에서 問題가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合意한 項들과 또 우리 代表들의 그런 任務가 唯一 構成方案에 討論하자는 첫 우리 議題 討論한거 있단 말이에요.

그 議題 範圍에서 討論해야지 그 벗어나는 內容들이 더러 있다.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후에 基本問題 討論하면서 또 具體적으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基本은 뭐인가? 이제는 다 基本的으로 훑었으니까 하나하나 完結해 나가자. 그래서 10 個條項 먼저 이거 文案整理하자.

南(曹英承) : 그러니까 제가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또 이 會議進行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나는 이걸 會議를 진지하게 進行시켜 가지고 다음에 共同委員會를 우리가 想像을 해보자 이겁니다.

共同委員會의 사람수가 20名으로 構成되던 308個의 競技種目이 있습니다. 細部種目으로 따지면 308個의 競技種目に 關해서 合同訓練, 選拔戰, 選手參加構成團問題 등등을 다 合意處理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必要한 事項, 기틀을 우리가 무엇을 더 마련할거나 하는 問題를 우리가 일단 眞正한 意味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나왔으면 이 問題를 한번 討議해서 대충 엮어놓고 그 다음 처음부터 文案整理를 해 나가자 그런 式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은 會談議題外 것이니까」하고 一方的으로 제껴 놓아 버리고 처음부터 文案을 整理해 나가자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에 그냥 우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하자 하자』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잘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새로운 것이거든 아니든간에 眞正으로 나오는 우리의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手段으로서 提示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果然 이것을 附則에 포함시켜서 하나하나 討議해 나갈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合意를 해내고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文案을 整理해 나가는 이런 順으로 해야 서로 便하게 意見이 交換되고 이 하나하나 結末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北(장웅):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南(任台淳): 아니, 가만 가만! 아까 장선생 말씀하신 가운데, 아니 양쪽 분들이 말씀하셨고, 아까 장선생 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아직 안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答辯을 드릴게요.

北(장웅): 예, 뭐 答辯 그거 그것 後에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내가 이제 말하겠는데 내가 말한 다음에 같이 하십시오. 같이 그거 해주면 되

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오늘 보게되면 이쪽 運營細則問題, 運營細則도 變動이 많습니다. 한번 좀 꺼내 볼래요?

南(任台淳): 예, 多少 變動이 있어요.

北(장 응): 多少가 아니라 變動이 많습니다. 이 構成의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가 變動이 벌써 있고…….

南(曹英承): 어느 것 말입니까? 페이지를 말해 보세요.

北(장 응): 運營方案, 4페이지 共同推進機構에도요.

南(曹英承): 어느 어느 變化가 있습니까?

北(장 응): 「共同委員長은 雙方 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 級으로 하며」….

南(曹英承):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北(장 응): 「幹事委員會를 포함한 委員은 雙方올림픽委員會 委員 및 競技 團體 代表로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넷, 다섯, 2·3·4·5가…….

南(任台淳): 예. 이것 變動된 겁니다.

北(장 응): 變動이 됐는데 지금 그 오늘 지금 이거 實務代表接觸을 해 보니까 그 明白히 이거 討議에서 우리 自體가 이제 混亂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混亂이 된다.

왜그런가 하게 되면 이런 그 한두개 條項 이거 먼저번 6次 本會談에서 내놓은 問題들을 오늘 또 바꿔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問題들을 貴側도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내가 올림픽委員會 書記長인데 書記長 혼자 이자리에서 決心할 問題가 못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습니까?

南(任台淳): 아 그러니까 委員長이 副委員長으로 되었다.

北(장 응): 예, 그뿐 아니죠. 交替할 수 있다 뭐 이제 運營委員會를, 또 이제 運營委員會를 둔다고 했는데 『共同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各其 3名의 委員으로 構成된 運營委員會를 두며 雙方 幹事委員은 委員長을 맡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問題들도 이것 또 새로운 問題입니다. 그러시죠 예?

南(任台淳): 예, 그것 새로운 事項입니다. 예, 그건 뭐 그 얘기입니다.

北(장웅): 그런데 이 새로운 問題들을 오늘 내놓고 附則問題 이거 전혀 우리 뜻밖의 問題인데 附則問題를 오늘 이제 아주 긴 內容인데, 그 內容들을 지금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걸 討論해야 된다, 이걸 먼저 討論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이거야 정말 討議에서 이게 問題가 複雜해지죠. 이렇게 해 나가니까.

南(任台淳): 아니, 장先生!

北(장웅): 그래 우리는 어떻게 準備를 해 가지고 나왔는가 우리는. 그 저 그다음 스포츠맨들이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합시다.

먼저번에 우리가 本會談에서 지워진 實務代表接觸의 그 任務가 뭐인가? 그것은 實務接觸에서 이미 거의다 合意된 10個項目 構成方案問題하고 이쪽 運營細則問題 이런것들 文案整理 하는것을 오늘 우리는 豫見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또 가장 쉬운 問題이고 쉬운 問題인데 이와는 別途로 다른 것으로서 새로운 問題를 지금 들고 나와, 새로운 問題를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이자리에서 지금 이것을 먼저 討議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實際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 問題들을 자꾸 이렇게 複雜한 問題들을 내놓는가? 이렇게 가지고야 이거 정말 會談이 成果的으로 되겠는가?

우리는 이미 다 合意했고 그저 쉽게 雙方이 合意, 이미 完結할 수 있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는 건데, 이거는 싫다 이거는 後의 問題다. 가

장 緊要한 問題가 附則問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 難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混亂이 되고, 그리고 또 實際적으로 이거 唯一팀 構成을 뭐 하자는 건지 심지어 疑心까지 되는데 曹先生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曹英承) :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내가 말씀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視角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合意內容을 철저히 지키자 하는 約束을 굳게하는 意味에서 이 履行이 안될 경우에는 항상 個別的으로 參加할 수 있다 하는 條項을 신는 것은 오히려 그 約束을 철저히 지키자 하는 그런 意味로 볼 수도 있는건데, 貴側은 무조건 이것은 하지 말자는 前提는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봤거든. 또 그런 視角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北(장 옹) : 아 하지 맙시다 하는 거 아니고.

南(曹英承) : 一方的으로 그렇게 解釋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내놓았으며는 과연 앞으로…….

北(장 옹) : 아니 아니 거 任先生.

南(任台淳) :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장선생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側이 무슨 難關을 造成한다 이런 用語를 쓰시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게 實務接觸의 霧圈氣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實務者들이 모여 가지고 討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야말로 基本立場을 正確하게 전달하고 正確하게 이야기 하는게 좋지, 相對側이 무슨 難關을 造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것

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討議進行과 關聯해 가지고 貴側의 이야기는 전혀 우리側의 立場을 理解하지도 못할 것일 뿐만이 아니고 貴側의 主張論理는 하등의 妥當性이나 合理性이 없는 그러한 立場에 서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나 하면 貴側은 지금 이자리에 나와 가지고 10個項에 대한 討議를 다시하자, 처음부터 對比表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걸 對比를 해 가지고 討議를 해나가자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 合意書를 내놓은 것을 보아도 뭐 合意날짜 마저도 안들어간 채로 무슨 形式이 빠뜨렸다고 하겠지만, 10個項을 나열하고서 雙方 首席代表가 署名만 해놓은 이런 合意書는 아마 우리 이세상 천지에서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合意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貴側은 지금 合意했다는 것을 對外에 發表하는 데에만 계속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써 合意했다는 것을 對外에 發表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熱誠的인 데 行動으로써 實踐에 옮겨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同意를 안할려고 하는, 實踐은 가급적이며는 다음에 共同委에서 論議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전부 留保한 狀態로 놓아두고 우선 合意했다는 發表만 해 놓자.

그리고 지금 曹代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北京組織委員會에 通報를 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안될 경우에는, 안될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다는 그것은 確實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아주 合意됐다고 일단 發表했으면 그것으로써 合意된 거고

그냥 끝까지 다 돼버린거다. 그것은 實際狀況과 맞지않는 말의 놀음에 불과한 그러한 主張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어서 이야기를 하며는 貴側이 몇가지 案에, 內容에 대해서 지금 同意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우리가 合意書案을 내놓은 것과 關聯해서 그 全文에 대해서 同意를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10 個項에 대해서 同意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文案整理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附則, 附則中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附則 1 項 『코리아 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別途로 정한다』는 이 附屬合意書 內容에 대해서 同意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部分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部分的으로 調整을 한부분이 있다. 이제 그것을 보신 결과 좀더 檢討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調整한 部分에 대해서 좀더 檢討를 하시겠다. 그래서 文項討議를, 거기에 대해서는 文項討議도 오늘 다 하자는 立場인데, 그다음에 이제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에 대해서 이것은 좀더 研究를 해 보시겠다 이런 立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附則의 3, 附屬合意書 3 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異意를 提起하신 狀態에서 더이상 答辯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親善交換競技 開催와 施設踏査班 交換實施問題」에 대해서는 異意를, 同意를 안하신 狀態고.

그다음에 우리 附則 4 項 「雙方 合意事項에 대해서 北京組織委員會와 OCA에 書翰을 發送하는 問題」 이거 書翰을 發送하는 그 自體에 대해

서 까지 反對할 必要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書翰을 發送하되 어떤 內容으로 하느냐 하는 것, 지금 벌써 討論을 해 보니까 이런 異意가 提起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合意를 못보면 合意는 雙方 南北間에는 合意되었는데 北京組織委員會에다는 通報도 못하는 合意를 봐버렸다. 이렇게 할 수야 우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合意했다는걸 通報를 할 수 있도록 하는 合意를 봐야 되지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貴側이 여기에 同意를 못하신 狀態고.

그다음에 貴側이 序頭에 말씀하시기를 體育外的問題를 提起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附則에다가 이걸 집어넣자 하는데 대해서 同意한다는 말을 분명히 안해 주시는데, 그걸 빠뜨리신건지 모르겠는데 體育外的問題를 提起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5項이 이겁니다. 『雙方은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하여 相對側의 內政・法律制度・軍事訓練등 體育外的問題를 提起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貴側에서 序頭에서 말씀하실 적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附則條項에다 이것을 明記를 하자 하는데 대해서는 同意를 안하셨습니다.

北(장 응) : 그러니까 지금 한자 한자 討論하자는 겁니까?

南(任台淳) : 이야기로 하십시오.

北(장 응) : 討論하자는 겁니까 지금?

南(任台淳) :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基本內容 입니다.

北(장 응) : 이야기를 하십시오.

南(任台淳) : 또 그리고 輸送手段의 運行保障問題, 相對側 輸送手段의 運行保障問題에 대해서도 우리 意見을 제대로 안주셨고.

北(장 응) : 이야기를 分明히 했죠.

南(任台淳) : 이젠 뭐 異意를 한번 提起하신 狀態로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雙方 準備日程, 準備日程에 대해서도 날짜가 多少 變更이 됐다 이런 立場만 하고, 말하자면 그러면 이걸 原案대로 하고, 原來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原來 우리가 내놓았던 案대로 하자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 입니까?

北(장 응) : 原案대로 해야죠.

南(任台淳) : 그러면 討論을 해봅시다. 討論을 하되 하여간 이 項을 設定 하자는데 대해서는 同意를 하는 거죠?

北(장 응) : 원래대로 해야 됩니다. 다 말씀하십시오.

南(任台淳) : 그 다음에 原來대로 날짜 合意본게 지금 없는 狀態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北(장 응) : 마지막 段階에서 그걸 마련하고 .....

南(任台淳) : 마지막 段階 이런 이야기만 했지 分明하게 며칠부터 한다하는 걸 우리는 意見을 내놓았지만 貴側은 意見조차도 細部的인 意見을 내놓지가 않은 狀態입니다 지금.

北(장 응) : 마지막 段階에서 한다 그랬죠.

南(任台淳) : 그러니까 마지막 段階라는 막연한 表現만 있다뿐 아닙니까? 지금?

그다음에 8項에 대해서는 同意를 하셨고 그리고 이 効力條項에 대해

서는 이제 同意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合意가 無効가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同意를 안하시면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나는 論理的으로 理解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여간 討議를 必要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상 貴側이 말로는 아직 明白하게 이야길 안했지만 附則을 設定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同意를 하신 狀態로 理解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몇가지 內容에 대해서 研究하기로 하겠다 또는 異意를 提起한다 등등의 지금 意見 差異가 있는 이러한 狀態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合意書를 놓고 보면 各種 構成要素 가운데에 지금 雙方이 基本骨格을 討議를 할 必要가 있는 부분은 내가 보기에 附則條項의 몇개 項目의 몇가지 內容, 附則條項의 內容을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集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共同委員會 構成・運營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具體化시킨 그러한 內容이 들어있는데 사실 뭐 運營委員,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으로 하느냐 副委員長으로 하느냐? 貴側은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으로 처음에 안을 내왔었죠?

그런데 우리는 委員長으로 했다가 다시 副委員長으로 했는데 이것도 조금더 討議를 必要로 하는거라면 더 討議를 할 수가 있는 立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項目別로 文項을 整理하는 問題는 전부 文項整理를 一括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基本骨格을 構成하는 內容에 대한 討議를 오늘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時間餘裕가 있으면 文項整

理를 꼭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北(장 웅) : 내가 좀 얘기를 합시다.

우선 이제 任代表 이야기에서 지금 難關을 造成하고 混難을 造成했다는 問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쓰지말자 그러는데 實質적으로 오늘 이거 豫見됐던 案 以外の 問題들을 貴側에서 提起함으로써 難關이 造成되고 混難이 생긴 것만은 事實입니다.

여러차례 이런 이런 事例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말만하지 貴側에선, 北側에선 말만하지 行動으로 唯一팀을 構成하려는데 생각이 없고 對外에 發表하는데만 급급하다 그러는데 우선 그런 이야기를 이 實務代表接觸에서 任先生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南(任台淳) : 아니 事實이니까.

北(장 웅) : 이야기 들으십시오. 이야기 듣고서.

아 오늘도 우리가 行動으로써 貴側이 내놓은 案들에서 이미 同意를 준 것들이 있습니다. 同意를 준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附則이 되겠는지, 履行 저 合意書 履行保障裝置가 되겠는지, 履行保障裝置가 되겠는지, 細則이 되겠는지 하는 問題는 그것은 오늘 지금 貴側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이 問題를 먼저 討議하지 않는다고 지금 任代表는 우리 會談 立場問題까지 지금 이얘길하는데 이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合意書 날짜를 그 合意書에 쓰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지금 또 是非를 하는데 合意書가 지금 採擇이 안되는데 어떻게 合意書 날짜를 찍어



넣습니까? 合意書 날짜를?

南(任台淳): 그러면 合意는 來年에 해도 된다는 겁니까?

北(장웅): 合意書 날짜를 그러니까 어느 날로 찍는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論議가 되는데.

다음으로 對比表 問題입니다 對比表. 對比表는 雙方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一目瞭然하게 그저 속건표 식으로, 속건표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誠意껏 만들어서 貴則에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對比表를 넘겨준 問題를 가지고 또 任先生이 오늘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대방의 誠意에 대한 合當한 처신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貴側이 내놓은 附則問題에 대해서 이얘길 하겠습니다.

附則問題는 오늘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貴側이 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 雙方團長들이, 本會談 團長들이 附與한 任務外에 이런 問題들을 任台淳 선생님에게 여기서 내놓으면 任台淳선생도 그 자리에서 討議를 못합니다. 이걸 내놓고 지금 討論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 附則이 되겠는지, 保障裝置가 되겠는지, 細則이 되겠는지 이거를 反對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첫 發言에서도 이야기했고 다음번 問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 反對하는 건 아니다. 保障履行, 履行保障裝置 問題도 될수도 있고, 細則이 될 수도 있고, 附則이 될 수도 있는데 그 內容上 問題가 지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용상 問題가 있다. 어떤것이 내용상 問題가 있는가? 이미 合意한 內

容들을 지금 拒否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合意한 內容들을.

實例를 듭시다. 이 交通問題 같은 것은 이걸 이미 合意를 했습니다.  
本 會談에서 團長들이 合意한 問題입니다.

招請側에서 便宜를 提供하는데 따르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問題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施設踏査班, 踏査班 問題가 또 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혀 이번 이 實務代表接觸이나 우리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本會談과도 관련이 없는, 갑자기 이거 共同委員會가 이제 合意書가 發表되면, 한 15日以內이면 共同委員會가 構成되는데, 合意書 發表後 15日以內에 共同委員會가 構成되는데 共同委員會 前에, 共同委員會 前에 交換競技를 한다. 이 問題를 지금 또 내 놓았습니다.

이 交換競技를 하자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이거 지금 이 唯一팀 本會談의 議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問題들을 지금 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림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 難關을 造成했는가? 造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南(任台淳): 이야기 다 했습니까?

北(장 응):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意見이 많은데 任先生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디까지나 이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本會談에서, 本會談과 이 實務代表接觸에서 基礎文件은 철저히 지금까지 거의 1年間に 걸쳐서 本會談과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한 10 個項 構成方案 입니다. 그거는 任先生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데 이걸 文項整理는 이거는 뭐 그거는 후차다, 이 附則問題가 基本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實務代表接觸이 空轉되고 실질적으로 큰 전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前文이라든가 이 擔保保證覺書 問題라든가 이런 거는 貴側의 案에 우리가 同意를 줬는데 이것이 行動으로 이미 우리가 이 唯一팀을 成事시키는데 얼마나 큰 誠意와 關心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任先生이 거 보니까 意見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內容上 問題에서, 內容上 問題에서는 우리가 同意하지 뭐 할 수 없는 이런 問題도 있는 것이고 研究를 이미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깐 그렇게 그저 액면 그대로 任先生이 그렇게 理解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南(任台淳): 내가 지금 장선생 얘기를 듣고 나는 오늘 아주 크게 失望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측은 지금 合意書를, 具體化한 合意書를 貴側에 傳達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合意書로, 合意書 草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해 동안에 雙方間에 會談을 한 結果를 土臺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어디까지나 基礎를 두어서 그 合意書의 精神을 反映하기 위해서 그 合意書의 實踐을 保障하기 위해서, 그 合意書의 効力を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合意書의 對外的인 必要한 機關에 傳達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國民들에게도 民族에게도 이 合意內容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內容을 빠짐없이 갖추어 가지고 이 合意書를 作成을 하자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案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貴側이 뭐 難關을 造成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뭐 처음에 附則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도대체 여기서 難關을 造成한다고 하는 그 意圖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그 底意가 무엇인가를 이자리에서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北側代表 웃음)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 보시라구.

北(장 웅):任先生 또 뭐 이거 .....

南(任台淳):아니 얘기를 좀 들어 보셔야 되겠어.

아니, 장선생이 내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이 合意書를 분명하게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難關을 造成하는 것이다.

아니 意見이 다르면 서로 意見이 다르니까 이 問題를 이렇게 討議를 하고, 그 問題는 우리로서는 意見이 다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協議를 하는 立場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難關을 造成하는 것이다.

아니 難關을 造成하는 相對들간에 무슨 對話를 합니까?

도대체 이 難關을 造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벌써 그 會談에 임하는 자세의 誠實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삼가해 달라.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점잖게 要求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難關을 造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나는 그래서 이제라도 적어도 이러한 難關을 造成한다든가 이런 말을 相對側을 놓고 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중히 貴側에게 이러한 用語를 더는 使用하지 말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北(김세진) :제가 한마디만, 가만 …….

南(任台淳) :그리고 아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또 附則은 처음이다. 貴側은 그랬는데 附側이 처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附則과 관련해 가지고 附則의 內容이 됩니까?

附則의 內容이라고 하는 것이 共同 …….

北(장웅) :任先生!

南(任台淳)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北(장웅) :요거 좀 짧게 합시다.

南(任台淳) :아니 얘기를 좀 들어 보시라고.

거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그러지 마세요.

北(장웅) :중간에 말을 하는거 아닌데 조금씩 짧게 합시다.

南(任台淳) :그래서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을, 別途 合意書を 만든다 하는 말을 이제 넣은 것이 附則인데 그것도 뭐 처음있는 이야기가 아닌거고.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하자. 그런데 貴側도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가지고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貴側은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걸 보면 合意書에 도대체 履行保障裝置라는게 한줄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北(허혁필) : 貴側에서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지.

南(任台淳) :아니 貴側도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會議

錄을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 序頭에서 먼저 發言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合意 事項 履行保障에 대해서 뭐 이리이러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만 強調하는데 口頭로만 얘기하려면 단일팀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文書로 分明히 그걸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온당했다 이런 얘깁니다.

적어도 合意書草案을 가지고 나오려면 거기에 대해서 合意事項 履行保障과 관련된 誠意表示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날짜를 뭐 했는데, 對比表에 대해서 내가 이걸 提示한 것 自體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對比表를 提示를 해 가지고 雙方 對比表를 놓고서 討議를 해나가자 하나까 지금 그 討議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는가, 그 討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省略하고 全體 合意文의 構成을 討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文案整理에 들어가자 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시한 것 自體를 是非했다고 하는데 누가 是非를 해요? 是非를 하기는……. 그렇게 表現하시면 안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問題를 난관을 造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會談에서는 成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雙方이 提示한 問題를 놓고 雙方이 진지하게 協議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協議를 해 나갈적에만 會談이 進展이 있을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雙方이 提示하는 案을 놓고 그야말로 차분한 霧圍氣에서 基本的으로 討議를 進行할 것을 同意

합니다.

北(장웅) : 허대표 한 말씀 하시지요. 아직 한마디도 안했는데…….

北(허혁필) : 任代表 말씀들어보면 아까 말과 行動 問題를 많이 強調하셨는데, 우리가 보건 데는 任代表의 말과 行動에 어딘가 差異가 있다. 그걸 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이 會談을 始作하면서 처음부터 이러저러한 形態로 言聲도 높였고 또 우리쪽에 刺戟이 되는 얘기를 꼭 하는걸 보게되면 任代表가 오늘 처음부터 이제 會談에 임하는 그 姿勢에 어딘가 불성실한 다른 저의가 있는 이런 느낌이 갑니다.

南(曹英承) : 그런 얘기가 지금 必要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北(허혁필) : 必要없는 얘긴게 아니라 이제도 방금 任代表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南(曹英承) : 不必要한 論爭은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듣기에 따라 다르니까…….

北(김세진) : 자기가 느낀 걸 얘기했는데…….

北(허혁필) : 내가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얘길 안했는데 오늘은 始終一貫 任代表가 發言하는거 들으면 어딘가 이게 무슨 다른 뜻이 담겨있다.

南(曹英承) :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이상하다 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北(허혁필) : 그래서 그걸 내가 몇가지로 얘길 하겠는데 그 쪽에서 무엇 때문에 계속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는가? 원래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 解決해야 될 基本使命이 무업니까?

南(曹英承) : 그건 아까 장웅대표가 얘기했잖아요?

北(허혁필) : 글썄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基本使命이 있는데, 10個項 文  
項整理하고 이쪽 細則問題整理하고, 그 다음에 保障裝置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實務代表들로서는 本會談에서 基本事項, 큰 테두리에  
서 論議된 그런 問題들 여기서 討議하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會談을 始作한 이래 오늘까지 本會談 여섯차례, 實  
務接觸 네번 하는데 지난 아홉차례 會談에서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전혀 論議되지 않았던 그런 問題가 오늘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南(曹英承) : 새로 問題들 내면 안되는 겁니까?

北(허혁필) : 안되는게 아니죠. 물론 좋은 意味에서는 내놓을 수도 있겠다.

南(曹英承) :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놓는  
게 안되는 겁니까?

北(허혁필) : 그래서 우리가 이제 附則…….

南(曹英承) : 그러면 會談을 뭐 할려고 해.

北(허혁필) :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어찌다가 얘길 하는데…….

南(曹英承) : 말씀하신걸, 아까 말씀하신 걸 時間도 없는데 또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北(허혁필) : 어찌다가 얘길하는데 任代表가 얘기한 그 10分의 1도 얘  
기 안했어요.

北(김세진) : 會談 참 별나게 하자고 그러는데……. 남 말하는데 자꾸 그  
러면 서로 刺戟된다고. 가만 들어보라요. 우리도 다 들어보고 얘길하는데  
말이요.



北(허혁필) : 그쪽에서는 10 個項이 基本이다 이 얘기는 同意를 하시면서도.

南(曹英承) : 물론이죠.

北(허혁필) : 10 個項 問題에 대해서 우리 合意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세상에 發表하면 좋으면 좋았지 여기 뭐 나쁠게 있는가.

南(曹英承) : 그거야 지난번에 다 얘길 했잖아요?

北(허혁필) : 아니, 조금 기다립시요. 마저 들으십시오.

南(任台淳) : 무슨 얘길 하는지? 쫓점을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인가 알수가 없어요.

北(장 응) : 우리 임선생이나 조선생 얘기할 때 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北(허혁필) : 아니 임선생 얘기는 다 맞아서 우리가 가만 있는 줄 알아요?

南(任台淳) : 얘길 하시라구, 아 얘길 하시라디까.

北(장 응) : 그러니까 들어야지 왜 자꾸 그래요?

南(任台淳) : 아니 그렇잖아요? 자꾸 任先生, 任先生 하면서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北(허혁필) :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얘길 합니까?

南(任台淳) : 왔다갔다 하니까,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南(曹英承) : 그쪽에서 一方的으로 解釋해서.....

南(任台淳) : 저의, 저의 하는데 무슨 저의예요?

北(허혁필) : 任先生, 누가 먼저 말했어요? 저의를 任先生이 얘기했지.

南(任台淳) : 저의, 저의 하는데 그 저의가 뭐라는 거예요?

北(장 웅) : 任先生이 저의 얘길 했지.

北(허혁필) : 그래서 10個項에 대한 合意가 돼서 이걸 世上에 發表하면 좋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問題를 계속 들고 나오는가? 그대 내 생각은 그래요.

한번 들어간 다음에 다음 會談 準備하면서 더 잘하자는 그런 方向에서 問題를 研究해 가지고 나와야 原則인데, 이제 그쪽에서 잘못하면 誤解하실 수 있는데 내 혼자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 이제 될 提議를 새로하면 北에서 받기 어려워 하겠는가? 아 이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전혀 지금까지 論議되지 않았던 무슨 踏查問題, 그 다음에 親善競技問題 이런 問題를 包含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問題를 내놨다…….

南(曹英承) : 그런게 必要없습니까?

北(허혁필) : 우리는 必要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基本 唯一팀으로 만드는데서…….

南(曹英承) :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北(허혁필) : 글썄 그러니까 우리 立場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선 그런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아니래도 10個條項 討論하고 그 다음에 이제 運營細則과 關聯된 問題 合意하고, 그 다음에 이제 保障裝置問題 討論하고, 擔保問題…….

이렇게 하면 큰 線에서 이 기둥이 다 討論되는데 繼續 새로운 問題

提起한다…….

南(曹英承) : 제가 좀 얘기할까요?

北(허혁필) : 가만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意味에서 볼 때 우리 實務代表接觸에서 전혀 지금까지 論議되지 않았던 또 우리로서는 決心하기도 어려운 이런 問題들만 오늘 여러가지를 提起를 했는데, 이렇게 問題를 複雜하게 만들지 말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아까 장대표同志가 내 없는 사이에 또 이야기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一部問題는 아마 좀 反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意味에서는 理解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누누이 強調한 問題이지만 이 會談을 빨리 妥結해야겠다. 그런 意味에서는 이걸 妥結하자는 그런 方向인데, 아까 내 이거 지금 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任代表先生 아까 우리로서는 우리 式으로 思考를 해서 오늘 10個項이 基本이 되서 合意書 내왔는데 이거 世上에 없는 이런걸 내와요? 이런 式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南(曹英承) : 말씀 다 하셨습니까?

南(任台淳) :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말꼬리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南(朴秀蒼) : 한마디만 할게요.

北(장 옹) : 朴秀蒼先生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데 우리 꺾지 않겠습니다.

北(김세진) : 말꼬리 잡을거야 잡아야지. 잘못 말하는거야…….

南(朴秀蒼) : 우리가 느닷없는 것을 하여튼 여러가지 들고 나왔다하는 이야기입니다.

北(장 응) : 느닷없는게 아니고 전혀 關聯이 없는…….

南(朴秀蒼) : 솔직히 表現하면 그것이 北側에서는 전혀 豫想도 못했고, 쉽게 말해서 豫想못했고 전혀 關聯이 없는 問題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結局에 뭐냐? 合意事項 違反이다 하는 그런 結論이에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問題를 들고 나온게 아니고, 그것은 왜 아닌가하면 우리가 6次때 基調發言에서 分明히 이야기를 했거던요?

뭐냐? 雙方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에 대한 信賴를 內外的으로 보다 確實히 하기 위하여 合意事項의 用語定義問題, 單一팀構成·參加와 關聯한 日程의 遵守問題, 體育外的 問題와의 不連繫問題, 그 다음에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 이런 것에 合意하고 이를 雙方當局이 保證하는 것이 좋은 方案이 될 것이다 하는 問題를 우리 내놔는데 이러한 問題들을 그러면 具體적으로 合意事項 不履行時는 어떤 措置를 취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提示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느닷없는 것 들고 나온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나온 案에 대해서 지금 우리 北側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던요? 이걸 우리 代表들로서는 決定하기가 困難한 問題다. 그건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가서 研究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答을 주시면 되는거예요. 왜 이자리에서 그 問題를 討議 못하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옥박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北(장 응) : 朴秀蒼先生, 거 아주 바른 얘기 하시는구먼.

南(朴秀蒼) : 그 다음에 合意事項違反이다 하는 말씀은, 合意事項이라는 것은 共同委員會의 委員長을 NOC 委員長으로 하자하고 南北間에 合意書를

作成해 가지고 거기에 首席代表들이 싸인을 한 다음에는 그게 合意事項인 겁니다. 그 뒤에 委員長이라고 실컷 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야 그거 우리 副委員長으로 하자』한다면야 그건 당연히 合意事項違反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合意를 한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南과 北이 案을 내놓고 서로 比較했더니 意見이 一致하더라 이겁니다.

北(장 응) : 아 하하, 아 이제 거 뭐 合意했다고 하고선 또…….

南(朴秀蒼) : 意見이 一致했을 뿐이지 合意事項違反이라고 하는 것은 合意가 된 다음에 그것을 違反했을 때 合意事項 違反인 것이지 지금 狀態로서야 우리가 무슨 合意를 했습니까? 아무 것도 合意된 것이 없고 意見이 一致했을 뿐이지.

北(장 응) : 選拔戰을 한다고 한 것은 이미 合意한 것 아니에요?

北(김세진) : 예를 들면 오늘 雙方이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合意란 말이에요. 투표는 안했지만 合意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會談에 가선 아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모레는 또 이렇게 나오고…….

南(朴秀蒼) : 그렇게 나올 수 있는거라 이거야.

北(김세진) : 이래서 우리가 이거 會談앞에 자꾸 難關을 造成한다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正確하게 하시라 그거예요.

南(朴秀蒼) : 그렇게 하려는 會談을 진척시키는데 자꾸 時間만 보낼 뿐이다. 만약에 表現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理解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委員長으로 하자고 했다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委員長보다는 副委員長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副委員長으로 바꾼것이다 이거예요.

北(장 웅) : 그건 問題가 아니라고.

南(朴秀蒼) : 그리고 또 親善競技를 갖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合意事項을 어떻게 하면 遵守할 수 있겠는가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點檢해 보기 위해서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는 提示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의 一環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提示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더 研究를 해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야, 우리는 研究를 해보았는데 그 問題가 必要없다』 이런 結論이 나오실 수도 있는거고, 연구를 해봤더니 『너희들은 그 種目を 이러이러한 種目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種目は 좋지 않은 것 같고 다른 種目으로 하자』하면 그런 討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親善競技問題가 不必要한 것을 提起하고 會談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어떤 難關을 造成하기 위한 어떤 …… 천만의 말씀!

單一팀을 構成할 의지가 없다면 무엇하러 이따위 소리 자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둘다리를 두들겨서 건너려고 하는 것은 單一팀을 진정으로 成事시켜서 베이징에 우리가 한팀으로 해서 나갈려고 하는 意志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경우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疑心스러운게 있으면 그걸 다시한번 짚어 불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意志가 없다면 무엇하러 그래요?

北(장 웅) : 내가 할 소리를 다 하는구먼.

南(曹英承) : 자 장웅代表! 내가 두가지만 이어서, 두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進行하시지요.

北(김세진) : 曹先生, 曹先生! 나도 한마디 좀 합시다요. 뭐 繼續 曹先生만 하고 뭐 거기만 하겠습니까? 나도 한마디합시다.

南(任台淳) : 뭐, 얘기할 사람은 다들 하세요 뭐.

北(김세진) : 아, 임대표! 내 이거 좀 慎重한 말 하겠는데 이거 잘 理解들 해주세요.

이거 오늘 會談 처음부터 쪽 過程들을 보면 사실 오늘 임대표가 처음에 아주 좋은 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백 말을 타고 年初부터 정말 속도전으로 이렇게 달리자고 아주 좋은 말 많이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 過程을 보게되면 이거 뭐 이렇게 그 하나도 事業이 진전없이 서로 그 말싸움들만 이렇게 나가면 이거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말싸움하는걸 보면 내가 느껴지는건 두가지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 두가지 問題를 좀 얘기하자고 하는데 하나는, 자 이거 會談앞에 이렇게 複雜하게 難關을 造成한다, 거긴 아니라고 하는 이 問題인데 .....

왜 우리가 이거 會談앞에 難關을 造成한다, 複雜性을 造成한다 이런말을 하게 됐는가 이걸 그쪽에서 理解를 正確하니 하시라구요.

南(任台淳) : 아니, 難關만 造成한다는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 分明히 하세요.

北(김세진) : 아니 이제 複雜하다 難關을 造成한다,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건 임대표 말을 들어봐야, 아 相對側이 그렇기 때문에 달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말들이 왔다갔다하는가 이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몇가지 實例를 들면 이제 보라요.

우리가 오늘 會談은 이 代表들간에 이미 議題에 規定된 그 範圍에서 自己權能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들을 討論해야 되겠는데.

내 가만들어 보니까 아까 뭐 附錄이라는거 提起해 가지고서 附錄에 무슨거까지 提起됐는가, 이제도 조금 얘기 됐지만.

아, 이거 무슨 事前에 무슨 雰囲気을 造成하기 위해서 交換競技를 하자. 무슨 施設參觀團을 組織하자. 이거야 우리 唯一팀 構成問題하고 거리가 먼거 아니냐.

지금 唯一팀 構成·參加問題도 合意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것까지 여기다가 添加시켜 놓고 이러니까 왜 우리가 複雜하다고 말안하겠는가? 이問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걸 正確하니 理解를 하셔야되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會談 쪽 보라요. 그래서 이제 그 合意書를 어떤 틀(格式)거리로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案 내놓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틀거리 하자, 그래서 난 初步的으로 그런식으로 하자는 걸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우리는 그러면 그 틀거리 안에서 10個 條項의 文項整理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자.

事業이라는게 順次가 있고 工程이 있으니까 그래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자. 아 이렇게 또 했으면, 아 임대포 뭐 그게 큰 問題인가, 事實 이래하자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자 구 그거부터 이렇게 결속해 나가자,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事實 하자고 하면야 이게 무슨 問題인가? 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자꾸 왜 이렇게 하는가, 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會談이 複雜해 진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 곰곰히들 생각해 보시구 서로들 잘못된거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자 거 討論되는거 보면 朴秀蒼代表도 그렇고 한테, 雙方間에 合意問題를 가지고 뭐 履行하느니 안하느니 하면서 이런 問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얘기 잘했어요. 잘했는데, 거 合意問題를 놓고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 合意됐으면 내일부터는 그 合意事項을 尊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唯一팀構成이 빨리되고 雙方 會談에서 信義가 있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내일와서 또 저렇게 하자고 그러구 모레가 이렇게 하자면 이게 雙方代表 信義가 없는 表現이다. 會談은 더디고.

왜 이렇게 할 必要도 없는가, 이여의 問題는 다 이미 우리 規定한데 따라서 共同委員會에서도 하자, 事務局에서 할일도 있고 專門委員會에서도 할일이 있고 다 規定해 놓았는데, 거기서 할건 거기서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겠는데.

아 이거 이렇게 合意해놓은 問題를 또 뒤집으니까 우리로서는 얘기할 수 있다. 이걸 貴側에서 充分히 理解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디지 않는가 會談이, 이거 뭐 틀림없지 않는가 이렇게 나가면 .....

이래서 이런 問題는 서로 必要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럴적에는 사실이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必要한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互相 理解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信義있게 會談이 잘될 수 있겠다. 그런식으로 좀 會談을 해야되겠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任代表는 거 말로써는 하자그러구 實踐意志가 없다고 우리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삼가를 해야 되겠다.

왜 이걸 삼가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任代表가 實踐意志가 있다면 아까 내가 얘기를 한것 처럼 하나하나 10個 事項부터 討論해 나가면 언젠가 될게 아닌가. 實踐意志가 있다면…….

지금 다 唯一팀構成을 하자고 하지 누구 안하겠다고 한 사람있는가? 實踐意志만 있다면야 그렇게 해나가면야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는데 왜 굳이 그걸 자꾸 새로운 問題를 내놓고 討論하자구 하니가, 털어놓고 여기서 새로운 問題 내놓으면 우리도 研究할 機會가 있어야 될게 아닌가. 이것도 考慮하지 않고서 자꾸 자기것만 하자니까, 이렇게 會談하면 되겠는가? 이게 實踐意志가 있다고 봐야되겠는가? 이런 側面에서 불적에 任代表도 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會談을 서로 信義있게 정말 誠意는 誠意로 받고 서로 양보도 하고 정말 거 아까 임대표 얘기된 것 처럼 團合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會談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말들은 정말 그렇게 하자 해놓고 實踐은 오늘 結果가 證明해주지 않는가. 任代表가 實踐能力이 뭐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놓고보면 우리 代表들이 自己任務를 다 한다고 볼 수 있는가. 年初 첫 會談부터.

그래서 이런 側面에서 놓고 불적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걸 서로 理解를 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이렇게 會談을 잘 運營해 나가야 되겠

다. 내 이런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南(曹英承) :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北(김세진) : 예.

南(曹英承) : 일단 김세진代表 한 이야기는 뭐 다 省略을 하고 「잘해보자」하는 그런 趣旨로 말씀하셨다고 보고 내가 몇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늘로서 이 모든 會議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만날 때 相互間에 돌아가서 眞摯한 研究를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웅代表가 異意를 提起한 네가지 部分中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交通手段의 問題, 交通手段의 履行保障의 問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10 個項中에서 「모든 便宜는 招請側에서 負擔한다」 이렇게 한데 대해서 違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와 오히려 正反對로 다릅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정말 앞으로 單一팀을 構成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難關을 어떻게 하면 事前에 다 상상을 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豫防을 해나가느냐 하는 그런 眞摯한 側面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文書化하려고 그리고 相對方에 傳達하려고 하는 努力의 一環으로 이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이제는 옛날과 같이 뭐 「卓球選手 몇 명이 간다」 이게 問題가 아니라 몇 百名 最大는 한 600名 程度로 이렇게 豫想을

할 수 있습니다. 600 명이 「엔트리」니까.

600명 정도가 왔다갔다 하려고 그러면 輸送手段의 問題가 상당히 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500 명이 한번에 떠나는데 500 명이 板門店 같은데 와가지고 다시 裝具를 다 내려놓고 相對方에서 提供하는 車를 타고간다 하는 이런 式으로 좁게 생각하면 이 南北單一팀을 하자고 하는 合意한 以後에 取하는 措置로써는 너무 容縮하다. 일단 合意하고난 뒤의 이야기니까 合意하고난 뒤에라면 적어도 몇 百名 등 多量이 오고갈 때는 서울에서 車를 타고 그 裝具를 싣고 바로 平壤까지 가자 이겁니다.

平壤까지 가는데 板門店을 通過해서 平壤까지 가는 그 過程을 便宜를 提供해준다 하는 그런 意味로 解釋하면 되는거예요.

또 反對로 그쪽에서 合同訓練하기 위해서 한 200 명이 車를 타고 온다. 또 車가 안될 때에는 飛行機를 타고 오려고 그런다 하면 그쪽의 民航機를 타고 온다. 그럼 民航機를 타고 오는데 오라 이겁니다. 오는데 우리 領空을 날라오는 경우에 우리가 모든 便宜를 提供한다 하는 側面으로 넓게 解釋을 해서 이것을 實質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合同訓練 選手選拔戰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이 問題를 오늘 討議하자고 가지고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無條件 違背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하나 親善競技問題 이것도 「無條件 會談議題外에 관한 事項이니까 討議하지 말자. 엉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必要하다. 앞으로 巨大한 일을 해나감에 있어

서 그래도 우리 南北이 이 合意를 하는 過程에서 이제는 合意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뭐 날짜 늦출 것없이 정말 便利한 種目を 갖고 한번 왔다갔다 하자 이런 霧圍氣造成이 반드시 必要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強하게 느끼고 있는거예요.

그것은 뭐냐? 南北單一팀 構成을 障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南北單一팀 構成을 정말로 우리가 實踐하는 意志를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國民앞에 이런 것을 우리 體育人들이 實踐해보자 하는 정말 참다운 뜻에서 우리가 이 問題를 갖고 나와서 討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無條件 그쪽에서는 「議題 밖의 것이다. 關聯없다」 이렇게 斷定을 짓지 말고 우리의 強한 그 뜻을 認定한 그 必要性을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研究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하나, 日程問題를 말씀하셨는데 日程問題는 過去에는 우리가 討論하는 가운데, 文書로는 안되었지만 討論하는 過程에서 5月末에서 6月末로 選拔戰을 하자고 했는데 왜 또 갑자기 4月15日부터 이렇게 당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徹底히 檢討를 했습니다. 정말 專門的인 檢討를 했는데 6月22日까지 選手團이 完全히 構成되어서 提出해버리고 그때부터는 強化訓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逆算해보니까 적어도 選拔戰은 4月15日부터 5月15日 그 사이에는 끝나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意志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迅速하게 이 일을 處理해 나가자는 그러한 側面에서 새롭게 새롭게 檢討한 結果 그 意見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檢討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合意를 해놓고 또 合意를 保障하기 위해서 政府當局까지 覺書를 交換하는 이 程度의 튼튼한 合意를 해야될 必要性이 왜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事實上 우리가 45年間 헤어져 있다가 정말 民族이 같은 民族이니까 單一팀을 構成해보자 하는 그런 合意를 보는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難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貴側에서 歸責되는 事由가 있든지 南側에 歸責되는 事由가 있든지간에 그것은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合意事項을 履行하지 못하는 경우가 事實上 있을 경우에 그것 우리 둘이는 問題없다 이거예요. 南北間에는 『아 그래 이것 안되니까 할 수 없다. 다음에 한번 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事實自體를 우리가 나가는 곳은 北京大會라 이겁니다.

그 大會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合意를 하고 그러나 만일 이 合意事項이 부득이한 事由로 지켜질 수 없는 경우가 지금은 豫測할 수 없지만 그런 狀況이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는 NOC를 갖고 있으니 NOC가 別個로 해서 늠름하게 나갈 수 있다 하는 事項을 通報해놓자고 하는 그런 뜻은 정말 이 履行을 確實하게 保障하자 라는 그런 趣旨에서 나온 文句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뜻을 읽어보시고 다음에 한번 檢討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가지 事項이 여러분들이 잘 眞摯하게 檢討만 된다면 다음에는 아마 상당한 進展이 있고 和氣靄靄한 가운데 討論이 이루어 지리라고 나는 豫想을 합니다.

北(김세진) : 자, 그래서…….

北(장 응)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南(任台淳) :장선생 뭐 말씀하시죠.

北(장 응) :예.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이제 曹先生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 우리 立場을 밝힌 問題에 대해서는 더 強調하지를 않고, 이제 朴先  
生하고 曹先生이 얘기를 했는데 그 朴先生 이제 이야기에서 새로운 問  
題를 내놓았다고 우리가 問題를 지금 썩우고 있다.

새로운 問題를 내놓은게 잘못이라고 지금 한다고 뒤애가 된 것 같은  
데 그게 問題가 아니라는거요. 새로운 問題도 물론 討議해가는 過程에  
는 내놓을 수는 있겠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論議되지 않은 이런 問題, 附則과 같은 이런 問題들을 내  
놓고 先討議가 이게 附則에 대한 討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나니까  
오늘 結局에 가서는 그저 우리가 貴側에서 내놓은 이 合意書 序文 그  
다음에 當局의 擔保覺書 이것 內容, 이것 合意한 것 그 다음에 發效時  
日 찍는 것 이런 것 外에는 지금 똑똑한 完全妥結을 본게 없습니다.  
完全妥結본게 없다.

또 한편 뭐냐 하면 『다 合意됐다고 하면서 또 合意된 것 實質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 이런 問題와 관련해  
서 이거 지금 온 겨레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해서 되  
겠는가? 원래 이것 우리에게 지워진대로 實際上 10個 問題들도 더 成果  
的으로 討論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結局에 가서는 오늘 이제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實質的으로는  
이 會談이 시작되어서 이 會談 議題로 되었던 問題와는 相關이 없고 共  
同委員會에서 討論할 問題까지도 다 이것 뭐냐하면 複雜하게 들고 나와

서 複雜性이 造成된 것만은 事實입니다.

이 難關이라고 하면 또 이것 거 뭐 任先生 대단히 싫다니까 이게 複雜한 問題 造成된거 事實이 아닌가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 接觸을 하면서 이제 貴側의 立場을 우리 알았습니다. 明白히 이거 貴側의 立場을 알았습니다. 貴側의 立場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저 오늘 討議過程에서 우리가 合意한 問題는 이 序文問題 이걸 合意했고, 뭐 前文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 序文問題가 合意가 되었고 當局의 保障覺書 이거 案 問題가 合意됐고 그 다음에 이 合意書內容에 包含시킬 內容들이 어떤 것들이겠는가?

그래서 前文 그 다음에 履行保障裝置問題, 運營細則問題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이런 것들을 合意書에 담아야 되겠다는 問題는 우리가 合意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附則에, 附則에 전혀 이것 뭐냐 하면 이 會談, 우리 本會談이나 이 實務代表接觸과 聯關이 없는 問題들을 들고나온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거 천만 뜻밖의 일이고 實質的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會談이 成事가 되겠는가까지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疑心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우리가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來日, 來日 接觸을 다시 합시다.

南(任台淳): 음, 말씀 다 하셨습니까?

北(장 옹): 來日 接觸을 다시 합시다.

南(任台淳): 예, 그래서 우선 오늘 會談을 놓고 볼 적에 「接觸을 더 가져야 되겠다」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同感입니다.



왜냐하면 우리側이 案을 내놓았고 또 貴側도 이제 案을 내놓았는데 雙方 案 사이에는 아직도 그 構成內容上 몇가지 더 討議를 해야 될, 基本的인 討議를 해야될 部分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그러한 討議 이제 거기에 대한 意見의 一致를 보기 위해서는 實務的인 接觸이 우선 더 必要하겠다 하는 생각을 貴側 意見에 同意를 합니다.

지금 장선생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合意書를 構成하는 基本要素와 關聯해가지고 多少間의 見解差異가 있습니다.

우선 前文에 대해서는 貴側이 이제 同意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 個項에 대해서 基本的으로 同意를 表示했고, 그리고서 이제 10 個項 以外에 두가지 問題, 그러니까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대한 具體的인 規定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 그리고 單一選手團 構成·參加의 合意事項 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別途로 規定을 해놓는다 하는데 대해서도 雙方이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問題 그리고 이제 이 效力條件 등등의 問題를 合意書에 包含을 시키자 하는데 대해서까지는 意見이 一致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附則이라는 名稱을 붙일 것인가 안붙일 것인가 뭐 結局 그런 程度의 問題가 남았다고 나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合意書의 形式問題…….

北(장 옹) : 가만 任先生!

南(任台淳) :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北(장 옹) : 發效時日問題를 附則에다 넣자는 것입니까?

南(任台淳) : 그렇지요. 뭐 附則에 넣는 것이 當然한 것 아닙니까?

언제나 發效時日 거기에…….

北(장 응) : 發效時日問題는 거저 合意書에 合意書 마지막에 넣습니다.

南(任台淳) : 예?

北(장 응) : 發效時日問題를 合意書 마지막에 넣읍시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附則이라는게 合意書의 마지막…….

北(장 응) : 基本合意書, 基本合意書 마지막에 넣읍시다.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基本合意書, 아니 지금 무엇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附則이라는게 本合意書 마지막에 붙은 것 아닙니까 이게?

北(장 응) : 아니 붙었는데 本合意書 條項 마감에다가 發效時日 넣읍시다.

南(任台淳) : 이게 附則이라는게 말하자면 의례히 그런 것입니다. 이게.

北(장 응) : 附則에 따로 넣지 말고 그건 附錄을 덮어놓고…….

南(任台淳) : 아 그럼 이 附則이라는 單語를 빼내버리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됩니까 지금?

北(장 응) : 아 附則에서 지금 繼續 理解를 잘못하누만. 附則이 되겠는지 履行保障裝置라든지 이번에 그 附則이라는 말 처음 한건데 貴側에서, 이것이 全部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녜요. 그 內容에서 지금 問題가 있겠습니까?

南(任台淳) : 그러니까 內容討議는 다음에 하자 이겁니다. 內容討議는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欄이 必要하다는 것은 認定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다가 하여간,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했듯이 말하자면 아까 그거 傳해드렸잖아요?

傳해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것 附則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效力發生日  
字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 뭐 慣例上 當然한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研究하시면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構成要素로  
서 우리로서는 當然히 附則이라는 名稱下에서 이게 羅列이 되는게 옳다  
고 하는 것이 우리의 立場인데 貴側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研究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서 이제 말하자면 날짜를 包含해서 署名連署를 하  
는 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附則의 內容을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따  
라서 別途 合意書의 必要性 與否가 이제 말하자면 附則의 內容與否에 따  
라서 이제 合意書가 決定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側으로서는 附則을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隨伴되는 別途 合意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內容을 이미 貴側  
에 提示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會談에서는 거기까지 討議가 된 狀態이고 다만 이  
제 討議를 하는 方法의 問題, 會議進行方法과 關聯해 가지고 貴側은 10 個項과  
共同委員會 運營細則 뭐 別途 合意書라 해도 좋고 細則이라 해도 좋겠  
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項目討議를 오늘 또다시 하자 이제 이러한 主張  
을 하셨는데…….

北(장 응) : 討議가 아니고 文項整理.

南(任台淳) : 文項整理를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말하자면  
履行保障裝置問題에 대한 相互 意見이 基本的으로 合致가 되지 않은 狀  
態이니까 그 部分에 대한 意見一致를 먼저 보고 그리고 一括해 가지고  
合意書 文項整理를 해들어 가자. 우리는 이런 立場을 밝혔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는 이거 뭐 상당히 研究를 하고 그야말로 이

제는 序頭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今年에는 그야말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해(年)인 만큼 뭐 이것 作業도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年末年始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作業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해보자고 해가지고 誠意를 보인 것이니까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研究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모이게 되면 아마 정말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意氣 投合해서,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뭐 더 얘기할게 있어요?

北(장웅) : 그래서 來日, 그러면 來日 午後에 합시다.

南(任台淳) : 그런데 이 案에 대해서 이제 장웅先生은 지난번에 뭐 한두 時間 썩 보고서는 同意를 하고 이러시던데 뭐 장웅先生 머리도 좋고 또 專門家시고 하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檢討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로서도 貴側의 意見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慎重하게 檢討를 해 볼 必要가 있지 않겠어요?

貴側의 意見이 이러한 얘기를 했고 오늘 뭐 雰圍氣가 겨우 별로 좋지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다음번 會談에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今年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接觸을 갖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成事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成事를 시키려면 좀 研究도 해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며칠간 餘裕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데 適當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5日날, 15日날 만날 것을 우리가 修正提議를 합니다.

北(장웅) : 15日날이면 늦지 않을까?

北(김세진) : 15日날이면 18日날 本會談있고 하니 너무 늦잖아요? 任先生!

南(任台淳) : 아니 實務的으로 充分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北(김세진) : 任先生! 내 좀 이제 그저 15日로 定하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15日날 그걸 하면 또 올라가서 本會談 準備를 해가지고 또 오면 時間이 없단 말이에요. 18日이니까 다음날 올라가면 16日이 되죠? 내려오려면 쉬어야 되죠.

北(장웅) :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來日로 했는데 그쪽에서 15日로 불렀는데 12日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12日날?

南(任台淳) : 아니 우리로서는 이게 며칠 餘裕를 두는 것이…….

北(장웅) : 12日날.

南(任台淳) :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날짜를 보니까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뭐 今年 달력을 내가 複寫를 했는데.

北(장웅) : 예, 12日날 합시다. 12日.

南(任台淳) : 18日날 本會談을 하게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적어도 本會談 때까지는 合意를 이룩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北(장웅) : 그러니까…….

南(任台淳) : 그래서 이제 15日날 하면 내가 보기에 아주 適切하다고 봐요. 그 中間쯤 되는데 그래 15日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北(장웅) : 아니 만일의 경우를…….

北(허혁필) : 우리가 平壤에 갔다와야 된다니까.

北(장웅) : 만일의 경우를 對備해서, 만일의 경우를 對備해서 왜그러느냐

하면 이제 그…….

南(任台淳) : 아니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또 윗분네들하고도 相議도 하고 그  
래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重要한 部分들도 있고 그런데.

北(장 응) : 아니 任先生! 任先生! 이렇게 합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제 그 餘裕를 조금 뒤야 되겠으니까 다음번 接觸과 本會談 사이에 餘  
裕를 두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任先生이 오늘 처음에 하신 이야기하고 이제 마  
감하는 이야기가 곧 들이 그제 마음에 꼭 드는데, 이거 이달 중으로 어  
떻게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얘기 그것 그제 속 들어  
오는데…….

南(任台淳) : 아니 그래서…….

北(장 응) :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하자면 만일 우리가 그  
文項整理를 이제 15日날에 못 끝낸다 하더라도 問題라 이거지.

그러니까 12日날이면 어떻습니까?

南(任台淳) : 아 15日날 끝내야죠. 만약에 15日날 못 끝낸다면 16日까지  
도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貴側이 이게 아마 내가  
불적에 이것 좀 研究를 貴側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北(장 응) : 글썄 充分히 우리…….

北(김세진) : 우리 午後도 하고 來日 하루더 研究를 해서 모레 하자고.

南(任台淳) : 이거 하루 研究하고 자꾸 또 나와가지고 한다 그런다 하면  
오늘과 똑같은 마당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  
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갔다왔다 하시는 것이 좀 고생스러우신, 뭐 그건 조금

잠깐 왔다 몇 시간이면 왔다갔다 하실텐데요 뭐.

北(장웅) : 아니 그러면 조금 餘裕를 가지기 위해서 15일이 좀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3일로 합시다. 13일.

南(任台淳) : 아 13일은 土曜日이고 그러니까 내가 불적에 15일이 아주 適期입니다. 適期.

北(장웅) : 12일이 어떻게? 12일이 안되겠어요?

南(任台淳) : 아니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것 15일, 15일이 適當해요.

北(김세진) : 任先生!

南(任台淳) : 예.

北(장웅) : 야 이것 한번도 讓步를 안하는구만 한번도. 날짜 問題를 한번도 讓步 안하시는구만.

南(任台淳) : 아니 지난번 實務接觸 때 날짜를 항상 그쪽에서 짚으셨지 뭐.

北(김세진) : 任先生! 내 質問에 한번 答辯 해보오. 하자는 立場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지 않소?

南(任台淳) : 아 그런 입씨름 하지 맙시다. 貴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뭐 하시다고 어차피 뭐 한번 올라 갔다 오시는 것이…….

北(김세진) : 아니 우리 事情도 있어요. 15일날 하고 16일날 올라 갔다가 17일날 어떻게 내려와요? 또 이렇게 會談하라고 그렇게 理解를 해 주어야지 말어요.

北(장웅) : 그것 저 뭐냐하면 任先生님 보라구요. 이제 15일날 하면 우리가 16일날 가야된다고요.

北(김세진) : 올라 갔다 17日날 또 내려와야 되고 말이에요.

北(장 응) : 또 갔다가 17日날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소?

南(任台淳) : 아니 내가 보기에, 아니 이것 말입니다. 그것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이것은 그때 合意가 이뤄지게 되면 事實 18日날은 確認하고 署名하는 作業만 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北(장 응) : 그렇죠.

南(任台淳) : 뭐 事實 그런데 우리 그렇게 想定을 하면 事實 별개 아닙니다 지금.

北(장 응) : 아니 그러니까 任先生님!

北(김세진) : 오늘 내가 文件을 完成을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겠는데 올라가고 내려올 時間이 없어요 우리가.

北(장 응) : 아니 내가 얘기 합시다. 내가 얘기 합시다. 내가 얘기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南(任台淳) :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몇 時間,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北(김세진) : 任先生 참 응졸하구만. 그런 條件이야 좀 保障해 주셔야지 그런 것까지 자꾸 그러면…….

南(任台淳) : 아니 글썄 그런 것을 가지고 응졸하다고 그러면 뭐 이야기가 됩니까? 이게 말을 덮어놓고 내뱉으면 되는게 아네요.

北(장 응) : 任先生! 그러니까 15日 以前에는 그것도 전혀 안되겠다 이것입니까?

南(任台淳) : 아니 뭐 전혀 안된다기 보다 15日날 하자는 것인데 이것 말을 바꿔 놓으면 똑같은 것 아네요?



北(장웅) : 아니 왜냐하면 15日과 다음번 接觸과 本會談 사이에 餘裕를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南(任台淳) : 예 ?

北(장웅) : 餘裕를 조금, 餘裕를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南(任台淳) : 아니 15日날 합시다. 15日날. 아 이것 뭐 자꾸 그렇게…….

北(장웅) : 아니 曹先生! 좀 세분이 좀 討論좀…….

北(김세진) : 이 任代表 이렇기 때문에 이것 뭐 討論이 상당히 힘들다고.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올 時間이야 주어야지 그것까지 얹어매면 어떻게 하오?

南(曹英承) : 우리 任代表가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納得이 가는 部分이 뭐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중에서 우리가 提示한 것을 『상당히 새롭다』 이야기한 部分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것 상당히 誠意를 갖고 提議한 것이니까 充分한 時間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南(任台淳) : 나는 너무 性急하게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南(曹英承) : 한번 생각해 보세요.

北(허혁필) : 充分한 時間이라는게 뭐 時間이 길어서 되는 거나요? 그것도 올라가서 討論할 時間이 있어야죠. 時間이 必要한데 글썽 다음 實務接觸 날짜의 그 時間하고 다음 實務接觸에서 本會談까지의 그 날짜가 必要하지 않아요?

南(任台淳) : 지금 例컨대 理由가 그겁니다. 이 다음에 18日날 나오는 時間하고 15日날 올라갔다 내려올 날짜가 問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것 뭐 12日날 例컨대 貴側에서 얘기하는 것 來日도 하자고 지금 그러는데.

北(장 응) : 來日하면 더좋고.

南(任台淳) : 우리가 불적에는 그것을 좀더 眞摯하게 檢討를 해가지고 論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루에 마무리를 지어서 本會談에 넘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것 우리 案을 좀 文項整理까지 다음번에는 이제 끝낼 셈을 치고서 文項까지 다시 한번 檢討를 죽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貴側案도 이제 文項이 새로 나온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檢討를 우리가 徹頭徹尾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文項整理를 해야 되니까.

北(장 응) : 아니 그러니까 글썄 될 한다는 것은 그건 가서 各其 그저 할 노릇이고.

南(任台淳) : 그래서 우리는 15日을, 15日날 할 것을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꼭 15日날 해야겠다. 15日날 그저 以外에는 안되겠다?

南(任台淳) : 아니 뭐 15日날 하는게 適切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北(김세진) : 아 任代表!

北(장 응) : 아 그거 됐습니다. 15日, 15日에 합시다.

南(任台淳) : 그래요? 좋습니다. 뭐 15日날 합시다.

北(장 응) : 15日날 하는데 任先生 그저 한가지…….

南(任台淳) : 아이 참 힘드는구만.

北(장 응) : 아 힘들구만. 힘드는데 한가지 얘기만 합시다. 다른것 아니고 뭐 다른 演說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마감고비에 들어섰기 때문에 온 겨레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唯一팀을 成事시키도록 하자면 우리

實務代表들이 어떻게 이것 일을 하는가 하는것이 대단히 重要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實務代表接觸에서 좀 複雜해질 수 있는 좀 힘든 問題들 그리고 또 이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해야될 問題들이나 이런 問題들은 더 이제는 附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저 強調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롭게 그저 갈수록 疊疊山中이라고 그저 또 자꾸 이 새로운 問題들이 提起되면 아무래도 討議할 餘裕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일단 여기에서 決心할 問題들도 있지만은 決心하지 못할 問題들도 있으니까 이런 事例는 다시 翻覆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그것 그저 간단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南(任台淳): 그래서 뭐 일어나시겠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일어 쉽시다.

北(장 응): 뭐 또 이야기 하실려고?

南(任台淳): 우리가 接觸을 끝내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모양 좋게 이렇게 接觸을 끝냅시다. 다 잘 하시다가 또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事實 今年度에 들어가지고 이 첫 接觸을 가졌는데 우리들로서는 정말로 誠意를 다해서 合意書 草案을 아주 具體的인 內容까지 全部 規定을 한 案을 내놓았습니다.

貴側은 지금 뭐 來日이라도 또 接觸을 하고 나서 이제 18日날 會談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事實 이 內容에 대해 貴側은 지금 異意을 提起를 하는 部分도 있고 研究를 해보겠다고 하는 部分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研究를 한 結果를 가지고서 우리

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正道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貴側은 10 個項 合意事項에 대한 發表부터 서 두르는 立場을 오늘도 繼續 가지고 나오셨는데…….

北(장 웅) : 그래 아까 한 말씀 또 하십니까?

南(任台淳) :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附帶條項에 대해서 그러니까 合意事項을 履行할 수 있는 保障裝置에 대해서 雙方이 合意를 하기로 지난 6 次會談에서 우리가 合意를 한 以上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分明하게 合意를 할 수 있는 그런 案을 貴側도 分明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나는 그래서 다음 接觸때에는 貴側에서도 그런 案을 좀 準備를 해서 나와주십사 말씀드립니다.

例컨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만을 놓고서 『이건 좋다 이걸 나쁘다』 이런 式으로 會談을 하는 것 보다는 貴側에서도 貴側의 案을 좀 거기에 대한 案을 좀 가지고 나올 것을 貴側에 정중하게 要求를 하면서 다음 會談에서는 그 問題가 意見의 一致를 볼 수 있는 그런 狀況이 되기를 期待합니다.

北(김세진) : 가만, 그저 여기 뭐 記者先生들 많고 한데 우리는 그 合意事項 첫 工程부터 이렇게 쭉 하나 하나 마무리지어 나가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원래 事業工程이라는게 또 順次라는게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나가는게 옳겠는데…….

南(任台淳) : 그러니까 서로 意見差異가 있는 部分…….

北(김세진) : 자꾸 副次的인 履行保障問題라든지 10 個 事項을 먼저 完結해 놓고, 자꾸 完結 안되었다니까 또 다른 問題가 必要한 것이지 10 個

事項의 合意事項이 그저 完結이 안되고 다른 履行保障條件이 될 必要합니까?

南(任台淳) : 아니 履行保障問題도 가지고 나와라 그것입니다.

南(曹英承) : 자, 이제 그만 끝내죠.

北(김세진) : 그러니까 貴側도 우리가 이야기한걸 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것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固執을 하면 되겠는가 이겁니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履行保障問題에 대한 案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記者先生님들도 계시고 한테 말이요 그…….

北(장 응) : 자 끝냅시다. 끝내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明白히 한가지 그저 하고픈 것은 이거 원래 아까 한번 言及이 스쳐 지나간 것인데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은 다음번에 그저 冊床위에 놓지말자.

南(任台淳) : 아니 우리 새로운 것 아닙니다.

北(허혁필) : 다른 새로운 것 뿐이 아니죠. 오늘 提起를 한 중에서도 우리가 받아먹기 싫어하고 받아먹기 어려워 하는 그런거는 撤回를 해야 됩니다.

南(曹英承) : 다들 한마디씩 하시네.

南(任台淳) : 아니 입에 맞는 떡과 맞지 않은 떡이 이제 따로따로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北(허혁필) : 아 그렇지요.

北(김세진) : 자, 그만 합시다.

南(任台淳) : 자 그러면 다음에 討議합시다. 자 手苦하셨습니다. 자 平壤에 다녀오실 때에는 좋은 것 가져오세요.

北(허혁필) : 한번 잘 합시다.

南(朴秀蒼) : 수고하셨습니다.

南(曹英承) : 수고하셨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

---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





##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 1.10 (水) 13:46 ~ 14:17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任台淳 首席代表

### 1. 記者會見文

그럼 오늘 南北體育會談 第4次 實務代表接觸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接觸은 아시는 바와같이 10시부터 1時 25分頃까지 약 3時間 半 가까이 會談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接觸에서 논의된 주요한 內容은 작년도에 本會談 6차례, 實務代表接觸 3차례 都合 9차례 南北體育人間 接觸의 結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合意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合意書 骨格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 討議를 했습니다.

合意書의 骨格은 이 合意書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問題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基本合意書의 內容 가운데 우선 前文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몇차례 會談을 가져 가지고, 현재 몇차례 會談을 가져 가지고 民族和解와 團合의 精神에 입각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合意를 한다』는 그런 간략한 內容의 前文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10個項에 대해서 그동안 實務代表接觸 그리고 6次會談 등에서 雙方間에 意見一致가 된 그 部分을 基本骨格으로 들어 얹혀 놓아야 되겠다 하는 意見を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附則部分이 必要하겠다.

附則은 뭐냐하면 共同委員會 構成・運營과 相關한 別途 合意書를 만들어

야 되도록 돼있고 또 뿐만 아니라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각기 가지고 나와서 그 問題를 오늘 討議를 하기로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內容으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附則에다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合意書가 언제 效力을 發生할 것인가 이 效力條項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되겠다. 이러한 등등을 묶어가지고 附則條項으로 해야되겠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날짜나 連署를 하는 署名欄이 必要하겠다.

그리고 이제 附則을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따라서 附屬合意書가 몇가지가 되지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意見を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北側은 우리하고 조금 立場이 달리, 조금이 아니라 아주 달리 나타났는데 北側은 처음에는 10個項 合意書 文案의 對比表를 우리한테 提示를 하면서 그리고 또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南北의 것을 對比하는 對比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討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지난번 實務代表接觸에서 이미 項目別로 이미 討議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文案整理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과 관련해서도 貴側이 이미 同意를 한 部分이기 때문에 그것도 文案整理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合意書 構成 骨格의 마지막 部分에 해당되는 이 附則의 內容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기에 대해서 意見を 交換하자. 內容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은 또 다른 部分에 대해서는 意見 오늘 討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結果적으로 討議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附則이라는 用語를 자주 回避하려고 하는 그러한 立場을 취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側이 가지고 나왔던 案에 대해서 研究를 해서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側은 附則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합의서를 몽땅 作成을 해가지고 아주 細部的인 內容까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번 年末年始에 우리는 제대로 쉬지들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몽땅 作成을 해서 合意書를 이번에 全般的으로 合意書를 만들어서 北側에 提示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合意書의 內容은 우선 前文과 本文 그리고 附則이 들어가 있는 合意書를 北側에다가 提示를 했고 또 그리고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提出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附則의 內容이, 우리側의 內容을 볼 것 같으면 그밖에도 이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와 관련해 가지고 10個項의 그 用語上, 用語解釋上에 差異가 크게 날 수 있는 問題들 이것을 共同委員會에 넘기기 前에 이것이 무슨 意味다 하는 것에 대해서 分明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部分은 몇가지 提起를 해서 이것을 別途 合意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北側에 提示를 했고 또 그리고 지금 北側의 態度를 볼 것 같으면 금방 合意한 것만 자주 發表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問題가 아니고 실제 이제 금년도는 行動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려면 적어도 霧圍氣를 우선 造成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合意事項을 과연 履行을 하고 體育交流를 정말로 實施할 수 있겠다 하는 實踐意志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方法으로써 우리는 親善 交換競技와 體育施設 踏查班 交換을 實施를 하자.

이건 뭐 大規模로 한다기 보다는 우리 경우는 卓球와 排球, 男女卓球와

排球를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금년도에 우선 첫  
事業으로 그걸 實施를 하자 하는 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合意書案을  
北側에 提示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또 아  
시아올림픽評議會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合意를 했소 하는 것을 通報를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共同委員會가 잘되고 單一팀이 構成이 되  
면 우리는 單一팀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잘 안될 경우가 있다 할것 같으면 그때는 뭐 어  
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까지도 우리는 짚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포함을 한 것을 편지로 보내자고 하는데 여기  
에 대해서도 北側은 異意를 提起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도합 4개의 합  
의서안을 내놓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試案을 우리가 北側에 提示를  
했는데 그건 뭐냐하면 이런 네가지 별도 合意書案 이외에 第11回 北京  
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대한 合意・履行을 위한 雙方 當  
局의 保障覺書를 合意書 採擇과 동시에 상호교환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안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北側에 주었어요.

이건 우리들로서는 雙方總理가 保障을 해서 交換을 하고 이걸 署名을  
하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된 것을 北側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北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研究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合意書 構成內容 가운데 前文에 대해서는 北側이 異意가 없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개항에 기본적으로 이제 同意를, 의견일치가 되  
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附則의 내용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親善交  
換競技나 施設踏查班 交換問題 그리고 北京大會組織委員會와 OCA에 통보를

해주는 問題 그리고 用語解釋上의 問題와 관련해가지고 相對側 輸送手段 利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北側 이 異意를 提起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會談에 難關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北側代表가, 그래서 도대체 그 會談現場에 나와서 難關을 조성한다는게 무슨 소리냐? 오히려 지금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진지하게 토론을 할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서 회담을 진행시켜야지 그렇게 難關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것은 실천의지와는 무관한거니까 그런 얘기는 삼가하도록 우리가 要求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討議를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異見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北側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研究를 해서 이걸 가지고 나오도록 다음 會談날짜와 관련해선 당장에 내일 또 만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北側에서 적어도 이 案을 진지하게, 北側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올려면 하루이틀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서 우리는 15일날을 다음 날짜를 제시를 해서 15일로 다음 接觸을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側의 생각으로서는 北側이 진정으로 單一팀을 성사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會談에 임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측이 제시한 이러한 모든 提案들에 대해서 하등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700여명이 南北을 오가면서 合同訓練을 실시를 하면서 單一팀을 구성을 하겠다는 참된 意志를 가지고 北韓側이 나왔다고 할것 같으면 적어도 몇명이 서울·평양을 오가면서 示範競技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구성을 하는데 誠意를 가지고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이게 合意事項 履行이 안될 경우에는 이게 無效가 된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미리부터 하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아마 15일날 나올적에는 北側이 좀더 연구를 한 결과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北側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만 나와준다면 할것 같으면 15일에 가서는 文項整理, 文項整理라는 건 쪽 한번 읽어나가면서 檢討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文項整理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다만 15일날 나올적에 北側이 이제 다소 어떤 다른 이견을 오늘과 같은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좀더 雙方間에 논의가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 2. 質疑・應答

質問：오늘 아까 말씀하신중에 4個 合意書, 5個項 附則, 1個 試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듣기로는, 각각 명칭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4個 合意書하고 5個項 말씀하신 내용중에 4個 合意書, 5個項 附則, 1個 試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대충들었고요. 그 합의를 명칭 혹은 5個項 附則의 제일 重要事項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말이죠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토의된건 말씀 안된것 같은데.

答辯：그러니까 4個 別途 附屬合意書의 名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質問 : 예, 4個 合意書라는 표현이 附屬合意書 입니까?

答辯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附屬合意書 1의 정식명칭이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그것이 이제 附屬合意書 1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10個項 및 附則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 이것이 附屬合意書 2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附屬合意書 3인데 「親善交換競技 開催 및 體育施設 踏査班 相互交換에 관한 合意書」 이것이 附屬合意書 3입니다.

그 다음에 附屬合意書 4가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보내는 書翰에 관한 合意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質問 : 4個 合意書 그러면 附屬合意書는 어디의 附屬合意書 입니까?

答辯 : 이것이 이제 本合意書에 붙는 겁니다.

質問 : 1個 試案이라는 표현하고 本合意書라는 것 구체적으로 좀.

答辯 : 1個 試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北京아시아 競技大會에 單一팀 構成·參加合意와 관련한 雙方當局의 保障覺書試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南側에서는 南北體育會談 合意事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남측당국이 적극 지원협조 하겠다 하는 것을, 할것을 보장한다고 署名하겠다 하는 것이고.

質問 : 總理 覺書 交換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거죠?

答辯 : 그렇죠. 이러한 내용에 覺書를 서로 交換을 해놓고 서로 발표를 하면 더 확실해 지지 않겠느냐 우린 그런 얘기입니다.

質問 : 5個項 附則 主要題目만, 附則의 앞대가리에 題目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附則 5個項 附則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설명 안하셨더라도 앞에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答辯：5個項 附則 보다는 이걸 지금 제가 다 基本合意書는 말씀을 드렸고 부칙의 내용을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요?

質問：내용을 길게는 안하시더라도 짚막하게 제일 주요 요점, 가장 중요한 요점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答辯：제가 要點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共同推進機構 運營細則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의 내용은 뭐냐하면 用語解釋上 問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사전에 일치를 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걸 이번에 合意書에서 밝힌 것이죠.

親善交換競技 開催하고 體育施設 踏査班 交換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組織委員會하고 OCA 에다가 통보하는 편지를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體育外的 問題를 여기에다가 결부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부칙에다 명백하게 박아두자.

그러니까 앞으로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 內政이라든지 무슨 法律制度, 軍事訓練 이런것들 자꾸 들춰내는 일이 없도록 서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나가야되고 6월 22일이면 엔트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중간에 共同委員會를 2월 1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중간에 합동훈련이라든가 선수선발전・선수단구성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그걸 만약 6月22日까지 전부 그때까지 미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日程을 그래도 정해놓고 해야되겠다 그러한 얘기를 포함을 시켰고 그것이 우리 부칙의 주요한 골격입니다.

質問: 그러면 하나 여쭙 보겠는데요. 방금 北側 장웅대표 發言에 따르면 말이죠 회담장에서 그런 표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일 쟁점이 會談이 決裂된 원인중에 제일 대표적인게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南北交換競技가 會談議題 밖의 문제다. 두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두개로 판단이 되는데, 두번째는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너희들이 제시하지 않았지 않느냐? 北韓側이 그래서 두가지가 제일 걸림돌로 생각하는데 말이죠.

장웅대표 발언 말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두가지를 물었는데요, 그 交換競技問題는 議題 밖의 문제다, 그다음의 문제는 一考의 價値도 없다. 그發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會談이 決裂되는 가능성이 있느냐 물었더니만 韓國側이 다음에 좋은 案을 가지고 나올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거의 완벽한 拒否意思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合意事項 履行保障問題에 있어서는 말이죠 지금까지의 會談으로 충분하다 雙方總理 覺書交換하는 것을 韓國側이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會談으로써 충분히 信賴하고 理解하고 남을 일이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交換競技를 안하겠다는 뜻을 현재까지로서는 분명히 했고, 두번째는 合意事項 保障裝置에서 總理覺書 交換하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앞으로 15日뿐만 아니라 18日에서도 兩側이 태도의 변화가 協商이니까 자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會談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는 단계에 들어 갔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答辯: 그거는 지금 北側이 親善交換競技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태도를 보아가지고는 異見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單一팀을 정말로 성사를 시킬려면 南北 選手들이 오갈수 있는데 대한 보장이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말로서 文書上으로 合意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선수들이 오고갈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중시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北側이 정말로 南北選手들이 오가면서 選拔戰을 실시를 하고 單一팀을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시적으로 내놓은 이런 選拔戰 親善競技에 대해서 하등 拒否反應을 보일 이유가 없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方法問題라든가 內容問題라든가 이런걸 가지고서 협의를 해온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協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아직도 北側이 單一팀 구성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會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문제에 대해서는 15日날 만나봐서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낙관이라든가 비관을 할수 있는 그러한 狀況은 이미 아니고 그건 15日날 北側 態度를 봐야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質問: 그러면 한가지 더 첨부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소위 말해서 지금 外交的으로 合意를 하는 과정에서 合意文書化된 합

의보다도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해보는 것을 말하자면 테스트 하는건데  
그걸 먼저 삼는다는 것은 저쪽이 말한대로 議題 밖의 얘기 아닙니까?

答辯 : 아니죠. 뭐냐하면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위기 조성  
과 실천의지를 서로 實證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적어도 南北體育交  
流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안을 내놓았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合意事項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保障裝置로써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가 지금 北側에 제시한 것인 만큼 이것을 여기에 대  
해선 討議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더 해보시지요. (曹英承代表를 向해서)

答辯 (曹英承) :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이 뭐냐하면 우리가 協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부터 해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提議한 것이 아닙니다. 일  
단 우리는 18日날 하기로 한다 그 合意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  
해 나왔습니다.

오늘 討議만 끝나면 18日날 싸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效  
력을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18日날 싸인 딱하고 2月1日날 效力을 발  
생한다 하는 것까지 文書에다 박았습니다.

그러면 2月1日날 發效하면 2月15日날 共同事務局이 설치가 됩니다.  
그중간에 우리가 싸인을 하고 效力을 완전히 발생하는 날짜를 박은 文  
書에 合意를 하고 난 뒤에 共同事務局이 15日날 발족하는데 그 사이에  
한 2월초쯤 돼서 親善交換競技를 한번 開催해 봄으로써 사전 분위기  
도 조성하고 신뢰도 회복하고 정말 國民한테 希望도 주고 하는 그런  
提案이기 때문에 議題 밖이 전혀 아니죠.

質問 : 저쪽 얘기는 2月1日부터 效力이 발생을 해가지고 15日 共同事務局이 설치가 되면 자연적으로 共同事務局의 일자체로서 交換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구태여 그걸 꼭 실시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意味에서 저쪽에서 議題 밖이라고 자꾸 主張하는것 같은데요?

答辯 : 그건 그렇게 그쪽에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45년간 문을 닫고있다가 갑자기 말이지 共同委員會 設置를 해가지고 거기서 論議해 보자 하는 그런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좀더 과감하게 共同委員會가 설치되고 난 뒤에 해야할 일을 바로 책임자끼리 만나가지고 술한 課題를 갖고 또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단일팀을 구성해서 나간다는 그런 거래의 合意가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못할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南北間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이라도 國民이 원하는 그런 아주 北側도 유리한 그런 競技 또 우리가 비등한 그런 競技를 좀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밀어보자 그런 취지니까, 이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南北單一팀을 구성해 나가자는 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할 일입니다.

質問 : 물론 北側이 인제 우선 일괄적인 妥結이라는 合意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물론 우리가 前提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親善 交換競技를 共同事務局 設置前에 해보자라는 얘기는 實務接觸次元을 조금 넘어선 얘기 아닙니까?

答辯 (曹英承) : 實務接觸에선 항상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質問：實務接觸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答辯(曹英承)：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견을 내놓으면 자기들이 가서 議論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돌아와서 「대충 그럼 의견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표자 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하자」하면 그때 가서 決定이 되는거지요.

質問：그럼 지금 오늘 會談에서, 오늘 接觸에서 이런 提案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다음에 연구를 해서 올건데 그러면 이 附則에서 내놔던 이런 네가지 案 外에 나머지 실질적인 우리 合意內容은 이미 다 合意가 됐다고 전제하에서 지금 이걸 부칙으로 내놓은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合意하자는게 아니라 일단 試案으로써 내놓은 거 아닙니까?

答辯(朴秀蒼)：제가 敷衍說明을 드릴게요.

北韓側이 얘기하는거나 또는 우리 記者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北韓側의 主張이 一理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지금 고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誤解가 왜 생기느냐 하면 북한측은 지금 우리가 내놓은 親善交換競技問題 딱 그것 예를 하나만 듭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議題 밖의 문제라고 지금 들고 나와요 의제밖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이 일응 「아 저게 그런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하고 誤解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體育會談의 議題는 뭐냐하는데 있습니다.

體育會談의 議題는 뭐냐하면 南北이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의제라고

하는건. 그런데 北韓側에서 지금 얘기하는 議題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까지 쪽 토의해온 소위 일반적으로 그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합의서 案 있지 않습니까?

1項에서 10項까지 예를 들어서 選手團 名稱을 필로 하느냐 團旗를 필로하느냐 團歌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들이 體育會談의 議題인 것처럼 저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誤解에 빠지는거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지금 議題를 다 웬만큼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親善交換競技 問題를 들고 나오는 것은, 北韓側의 얘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면 「너희들이 會談앞에 난관을 조성하려는게 아니냐」하는 것이 마치 그 주장이 그런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예요.

의제가 1項에서 10項까지도 물론 아니려니와 포괄적인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것이고 지금 이마당에 와서 오늘 이 接觸에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게 아니고 6次 實務接觸에서 이미 저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들은 대충 보지도 않고 『오 좋아 녀들 것 다 받아들일겠다』, 相對方의 提案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사있다면 그 제안을 놓고 최대한도 신중하고 그리고 충분한 檢討가 있는 다음에 『아 당신네들 案을 받아들일겠소』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뭔가 그냥 보지도 않고 척 넘기면서 『아 이것 받아들일겠다』하니 과연 우리가 相對方이 과연 받아들일겠다고 하는 그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작년 12월달에 여론조사한 것이 조선일보에 났는데 우리 국민 70 몇 %가 단일팀에 대해서 남북간에 설령 합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과연 단일팀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70 몇%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北韓側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자꾸 共同委員會를 구성을 빨리해서 거기서 지금 실지로 세부적인 問題를 討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야말로 나쁜 얘기로 難關을 造成해 가지고 單一팀 성사 안시킬려고 하는 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남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가자 이거예요. 親善交換競技問題가 뭐 어려운 問題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진정으로 單一팀을 성사시킬 意志가 있다면 그 사전에 한 2~3일이면 되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친구들 얘기하는 것을 議題밖의 問題를 들고나와서 會談앞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議題는 지금 基本合意書에 있는 1項과 10項이 아닌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1項에서 10項까지 국한되는 問題는 아니예요.

答辯(任台淳): 자 그럼 그정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1990. 1.10 (水) 13:30 ~ 13:45

\* 場所：板門店 北側地域 「板門閣」앞 階段

\* 出處：1990. 1.11 (木) 중앙방송 報道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 실무대표들의 제 4 차 접촉이 10 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접촉이 끝난 다음에 우리측 장웅대표가 기자들과 회견하고 이날 접촉진 행정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날 접촉의 목적과 사명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유일팀 구성과 관련한 10 개항에 대한 문안정리와 유일팀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보증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로 유일팀 구성방안 문안정리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10 개항의 매 조항들을 차례로 문안을 정리하여 의견일치를 본 합의서를 오는 18 일 본회담에 제기하자는 것이며, 둘째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보증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지난번 본회담에서 남측이 자기의 안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 만큼 그에 대해 먼저 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팀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문제는 우리가 지난 6 차 본회담에서 남측의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동의를



준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의는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접촉에서 우리 측은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측은 쌍방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접촉의 사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왔는가 하면 앞으로 설치될 공동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토의해야 할 문제들까지 들고 나와 접촉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남측은 유일팀 구성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른바 분위기 조성이라는 미명아래 공동위원회 발족 이전에 친선경기를 가지며 서로 상대방의 체육시설을 답사하도록 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으며 유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유일팀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에 남북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로 한다는 것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자는 엉뚱하고도 천만부당한 문제를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남측은 또한 이미 쌍방이 합의한 선수선발경기 날짜를 거의 두달이나 앞당겨 놓았을 뿐 아니라 북남 내왕을 통한 부담과 수송수단은 일체 초청측에서 보장한다는데 대해 합의해 놓고도 자기측 수송수단을 이용하자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측이 유일팀 구성을 위한 쌍방합의가 최종단계에 이른 마당에 와서 공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문제들이거나 유일팀 구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들을 실무대표접촉에 들고 나온 것은 접촉앞에 인위적인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는 처사라고 밝히고 남측의 입장과 자세를 놓고 볼때 유일팀을 성사시키려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우리측은 쌍방의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응당 본회담에서 부여받은 사명과 기능에 맞게 10개항에 대한 문안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이전에 친선경기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체육시설을 답사하자거나 하는 문제들을 합의서 세칙에 넣자고 하는 것은 쌍방 실무대표들의 사명과 기능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논박했습니다.

유일팀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개별팀으로 갈라서 출전하도록 제기하자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그것은 애당초 유일팀이 구성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매우 불순한 태도라고 강하게 추궁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측은 쌍방이 일단 합의한 문제는 존중해야 하고 또한 신의있게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측이 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사무국에서 토의하기로 한 문제까지 들고 나와 합의사항을 뒤집어 엮는 행동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우리측은 남측이 말로는 실천의지요 뭐요 하고 있지만 왕창같은 것을 들고나와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실천의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유일팀 구성과 관련한 10개항에 대한 문안정리부터 해나갈 것을 남측에 거듭 촉구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이날 자기의 부당한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측은 어떻게하나 유일팀을 성사시켜 온겨레와 북남의 체육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합의서 내용에서 서문부분과 당국의 담보각서문제, 합의서 발효시일과 관련한 남측안에 동의를 표시 했습니다.

우리측은 접촉을 계속 지으면서 남측이 유일팀 구성에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나올 것을 권고 했습니다.

우리측은 다음번 제 5차 실무대표 접촉을 오는 11일에 가지자고 하였으나 남측이 15일에 가지자고 끝까지 고집하여 그에 동의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체육회담 실무대표들의 제 4차 접촉이 1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